



아이들이 웃으면 세상이 행복합니다

충북교육 특색사업 추진을 위한
유럽 4개국 방문 종합 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차 례

I. 목 적	1
II. 개 요	1
1. 방문 기간	1
2. 방문자 명단	1
3. 방문국 :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2
4. 주요 방문기관 및 행사 내용	2
5. 주요 일정	2
6. 세부 일정	3
7. 순방 경로	5
III. 유럽 4개국 순방 주요 활동	5
1. 네덜란드	5
가. 네덜란드 국가 교육제도	5
나. 호로닝엔 대학교(University of Groningen)	6
다. 베르크만 고등학교(Werkman College)	13
라. 우리교육청 주최 방문기관 관계자 오찬	16
마. 헤이그 이준열사 기념관	16
2. 독일	17
가. 독일의 국가 교육 제도	17
나. 베를린 주교육부(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Jugend und Wissenschaft)	19
다. 발도로프 학교(Freie Waldorfschule Berlin-Kreuz)	21
3. 프랑스	24
가. 프랑스 국가 교육제도	24
나. 주 프랑스 이OO 한국대사 예방	25
다. 꼬레테이 교육청 주최 방문단 조찬	26
라. 플로라 트리스탕 고등학교(Lyceé Flora Tristan)	28
마. 에밀리 뒤 샤텔레 고등학교(Lyceé Polyvalent Emilie Du Chatelet)	30

4. 영국	34
가. 영국의 국가 교육제도	34
나. 킹스톤 대학교(Kingston University)	35
다. 애슐리 초등학교(Ashley C of E Primary School)	39
라. 교육감님 주최 어학연수단 만찬	44
마. 엡솜 & 이웰 중고등학교(Epsom & Ewell High School)	44
IV. 주요 성과 및 시사점	48
1. 네덜란드	48
가. 흐로닝엔 대학교(Groningen University) 방문	48
나. 베르크만 고등학교(Werkman College)	49
2. 독일	50
가. 베를린 주 교육부	50
나. 발도르프 슐레 크로이즈 (Freie Waldorfschule Berlin-Kreuz)	50
3. 프랑스	51
가. 그레테이 교육청 교육감 면담	51
나. 플로라 트리스탕 고등학교(Lycee Flora Tristan)	51
다. 에밀리 뒤 샤텔레 고등학교(Lycee Polyvalent Emilie Du Chatelet)	51
4. 영국	52
가. 킹스톤대학교(Kingston University)	52
나. 애슐리 초등학교(Ashley C of E Primary School)	53
다. 엡솜 앤드 이웰 고등학교(Epsom & Ewell High School)	53
※붙임 1. 베르크만 고등학교(Werkman College) 대화록	55
※붙임 2. 베를린 주 교육부 대화록	56
※붙임 3. 발도르프 슐레 크로이즈(Freie Waldorfschule Berlin-Kreuz) 사찰기록	60
※붙임 4.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 이OO 대사 예방 대화록	62
※붙임 5. 그레테이 교육청 교육감 조찬 면담 대화록	63
※붙임 6. 플로라 트리스탕 고등학교(Lycee Flora Tristan) 대화록	69
※붙임 7. 에밀리 뒤 샤텔레 고등학교(Lycee Polyvalent Emilie Du Chatelet) 대화록	73
※붙임 8. 충청북도교육청-킹스톤 대학교 업무 협약서	75
※붙임 9. 애슐리 초등학교(Ashley C of E Primary School) 대화록	76

I 목 적

- 교육선진국 우수교육기관 혁신학교 및 대안학교 방문
- 우리교육청 특색사업 추진(수업행동분석, 전인교육, 환경교육 등)
- 영어권국가 현지 어학연수 기관과 MOU 체결

II 개 요

1. 방문 기간

2015. 1. 8.(목) ~ 2015. 1. 17.(토) 8박 10일

2. 방문자 명단

순	소 속	직급(책)	성 명	비 고
1	충청북도교육청	교 육 감	김OO	
2	기획관	장 학 관	백OO	
3	진로인성교육과	장 학 사	오OO	
4	총무과	주 무 관	이OO	
5	기획관	교 사	박OO	
6	기획관	교 사	김OO	
7	기획관	교 사	이OO	
8	기획관	교 사	김OO	
9	기획관	교 사	이OO	

3. 방문국 :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4. 주요 방문기관 및 행사 내용

국 가	기 관	내 용	비 고
네덜란드	호로닝엔 대학교	-수업행동분석연구 주최 대학 방문	
독일	베를린 주교육부 및 발도르프 슐레	-우수교육기관 및 현지 혁신학교 방문	
프랑스	크레페이 교육청, 에밀리 뒤 샬레 고등학교 및 플로라 트리스탕 고등학교	-국제교류 MOU 체결 관련 협의 -자매결연 예정학교 방문	
영국	킹스턴 대학교	-어학연수기관과 MOU 체결 -연수생 격려 만찬	킹스턴 대 초청
	애설리 초등학교, 엡숨 & 이웰 고교	-자기주도학습, 전인교육, 환경교육 우수교육 기관 방문	

5. 주요 일정

순	날짜	-세 부 일 정	비고
제1일	1.8.(목)	· 인천 출발(11:35) / 암스테르담 도착(12:30)	
제2일	1.9.(금)	· 호로닝엔 대학교 방문	대한항공
제3일	1.10.(토)	· 세계 문화유산 견학	차량이동
제4일	1.11.(일)	· 암스테르담 출발(07:01) / 베를린 도착(13:23)	이 체
제5일	1.12.(월)	· 베를린 주 교육부 방문 · 발도로프 슐레 방문 · 베를린 출발(18:10) / 파리 도착(19:55)	차량이동 현지항공
제6일	1.13.(화)	· 세계 문화유산 견학	차량이동

순	날짜	-세 부 일 정	비고
제7일	1.14.(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레페이 교육청 방문 · 플로라 트리스탕 고등학교 방문 · 에밀리 뒤 샤텔레 고등학교 방문 · 파리 출발(18:13) / 런던 도착(19:39) 	차량이동 유로스타
제8일	1.15.(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학연수 기관 MOU 체결 · 애설리 초등학교 방문 · 연수단 격려 만찬 	차량이동
제9일	1.16.(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엠숨 & 이웰 중고등학교 방문 · 런던 출발(17:15) 	대한항공
제10일	1.17.(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도착(14:30) 	

6. 세부 일정

일 자	도 시 명	교통편	시 간	여 행 일 정	비고
제1일 1.8. (목)	청 주 인 천	전용차량 KE 925	06:30 11:35 18:40	도교육청 출발--인천공항 도착(08:30) 인천 국제공항 출발 암스테르담 도착 석식 / 호텔투숙	
제2일 1.9. (금)	암스테르담	전용차량	06:30 07:30 09:00 09:30 10:00 10:30 11:00 13:00 15:00 17:30	호텔조식 호로닝엔 대학교로 이동 호로닝엔 대학교 총장 예방 네덜란드 교육 체계 소개 초임교사 교육을 위한 연구 소개 ICALT 연구 소개 베르크만 고등학교(ICALT 참여 학교)방문 호로닝엔 대학교 관계자와 오찬 암스테르담으로 이동 석식 / 호텔투숙	
제3일 1.10. (토)	암스테르담 (헤이그)	전용차량	08:00 10:00 12:00 13:00 18:00 20:00	호텔조식 이준열사 기념관 방문 및 참배 중식 만국평화회의 유적지 등 견학 암스테르담으로 이동 후 석식 / 호텔투숙	

일 자	도 시 명	교통편	시 간	여 행 일 정	비고
제4일 1.11. (일)	암스테르담 베를린	전용차량 이체 전용차량	06:00 07:01 13:23 18:00	암스테르담 중앙역으로 이동 암스테르담 출발 베를린 도착 후 중식 베를린 장벽 미술기념관 등 견학 석식 / 호텔투숙	
제5일 1.12. (월)	베를린 파리	전용차량 AB8156	07:00 09:00 12:00 13:00 18:10 19:55	호텔조식 베를린 주교육부 방문 중식 발도로프 슐레 방문 베를린 출발 파리 도착 후 석식 / 호텔투숙	
제6일 1.13. (화)	파리	전용차량	07:00 09:00 12:00 13:00 18:00 20:30	호텔조식 파리 문화 탐방 중식 파리 문화 탐방 대사관 방문 석식 / 호텔투숙	
제7일 1.14. (수)	파리 런던	전용차량 유로스타	08:30 10:15 12:00 18:13 19:39	끄레테이 교육청 주최 방문단 조찬 플로라 트리스탕 고등학교 방문 에밀리 뒤 샤텔레 고등학교 방문 및 오찬 런던으로 이동 석식 / 호텔투숙	
제8일 1.15. (목)	런던	전용차량	07:00 09:30 12:00 13:00 18:00 20:00	호텔조식 킹스턴대학교 MOU 체결 중식 후 애설리 초등학교 방문 연수단 격려 만찬(한정식) 호텔투숙	
제9일 1.16. (금)	런던	전용차량 KE908	07:00 09:00 12:00 17:15	호텔조식 엠솜 & 이웰 중고등학교 방문 중식 공항으로 이동 런던 출발	
제10일 1.17. (토)	인천		18:15	인천 도착	

7. 순방 경로



순방경로 : 인천→암스테르담→베를린→파리→런던→인천

Ⅲ 유럽 4개국 순방 주요 활동

1. 네덜란드

가. 네덜란드 국가 교육제도

1) 초등교육

가) 초등교육(Basisonderwijs)은 한국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며, 4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함.

나) 네덜란드에는 약 7천여 개의 초등교육기관이 설립되어 있음.

- 다) 학습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시설도 다수 운영되고 있음.
- 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 있어서 사립학교까지 국가가 전액 보조.
- 마) 초등학교를 마친 아동은 초등교육과정에서 달성한 학업능력평가를 위해 국가 교육측정연구소의 CITO Test를 받음.
- 바) 이 결과와 함께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학생에게 적합한 종류의 상급학교로 진학함.

2) 중등교육

- 가) 중·고등학교가 통합되어 있으며, 12세부터 16세까지 중등교육을 받음.
- 나) 초등학교 졸업시험 성적 및 그간 학교성적, 적성, 인성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중등교육기관(3가지 종류)으로 진학시킴.
- 다) 중등학교는 대학사전학교(vwo, 6년), 일반중등학교(havo, 5년), 중등직업학교(vmbo, 4년) 등 3종류로 세분됨
- 라) 일반중등학교 과정을 마치면 대학준비과정 혹은 직업전문대학에 진학함.
- 마) 직업 중등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은 초기 2년 동안 일반교육을, 이후에는 전공 심화 교육을 습득.

3) 고등교육

- 가) 네덜란드의 고등교육기관은 이론적 연구에 주력하는 13개 대학교(WO)와 실무적인 교육에 중심이 있는 59개의 고등전문교육기관(HBO), 그리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1개 개방대학(MBO)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나) MBO(직업교육훈련)과정은 직업교육 및 훈련을 지향하는 과정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VMBO(직업준비)를 이수한 학생들이 MBO과정을 선택함.
- 다) HBO(실무중심대학)과정은 수준 높은 학습과 전문적인 실습이 이루어지는 실무 중심대학으로 4년 과정이며 240 ECTS 학점을 이수해야함.
- 라) HBO(실무중심대학)를 이수한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하거나 석사과정(1-2년)을 지원하여 공부 할 수도 있음.
- 마) WO(연구중심대학)는 이론적 연구에 주력하며,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수준 높은 과정을 제공함. 이 WO 학사 과정을 마친 뒤에, 석사 과정을 지원하거나 취업을 할 수 있음.

나. 흐로닝엔 대학교(University of Groningen)

- 방문 목적 : 수업행동분석연구의 이해

○ 참가자 및 행사 내용

직	성명	행사내용	비고
총장	씨OO OOO	예방	명예 대한민국 영사
교수	클OO O O	호로닝엔 대학교 및 교사 교육 소개	
교수	미O OO OOO	초임교사 교육을 위한 연구 소개	
교수	리OO OOOO	수업행동분석연구(ICALT) 연구 소개	
교수	천OO	통역	충남대

○ 세부 일정 : 2015. 1. 9.(금) 09:00~11:00

시간	일정	비고
09:00~09:30	총장 예방	통역
09:30~10:00	호로닝엔 대학교 및 교사 교육 소개	통역
10:00~10:30	초임교사 교육을 위한 연구 소개	통역
10:30~11:00	수업행동분석연구(ICALT) 연구 소개	통역

○ 위치 : 9712 CP Groningen, Netherlands(암스테르담 북동쪽)

1) 호로닝엔 대학교 개요

- 1614년에 설립되어 올해 400년이 된 대학교로서, 네덜란드에서 2번째로 오래되었으며, 유럽에서도 가장 오래된 연구 대학중 하나임.
- Aletta Jacobs(네덜란드 최초 여성 대학생) Frederik Zernike(1953년 노벨 물리학 수상) Wubbo Ockels(네덜란드 최초 우주인) Wim Duisenberg(유럽 은행의 첫 회장) Klaas Knot(현 Dutch Central Bank 회장) 등 저명한 졸업생을 배출함.
- 세계적으로 5%안에 들어가는 Business School 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의 대학 100 위권에 랭킹되어 있음.(세계 대학 랭킹 92위, 타임지 선정 랭킹 98위)
- 메인 캠퍼스는 암스테르담에서 약 2시간 거리인 호로닝엔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경제 비즈니스, 수학, 자연과학, 예술, 행동 과학, 법률, 의학 등 7개 학부로 구성되어 있음.

- 비즈니스, 의학 등의 분야를 더욱 발전시켜 세계 대학 상위권으로 도약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음.

2) 호로닝엔 대학교 교사교육

- 2011년 9월부터 대학의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행동 및 사회 과학 학부의 일부 사업으로 시작함.
- 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 센터로서, 프로그램은 주로 직업적인 교사, 초보교사와 경력 교사 및 과학 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과학적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기본 과정
 - 교사 교육 기본 과정은 중등학교 교직 준비과정임. 이 프로그램은 2년 과정으로서, 2년차 인턴십 획득을 위해 교직의 여러 측면에 익숙해지도록 설계되어 있음.
 - 기본 과정 (10 학점)은 교육학 석사과정의 첫 해 1학기 또는 2학기 때 수강함. 기본과정은 인턴십 준비과정(5 학점)과 이론적 지원(5 학점)으로 구성됨.
 - 중등학교의 인턴교사가 되면 15~20 시간의 수업을 담당하게 되며, 그중 6~10 시간 수업은 독립적으로 가르치게 됨.
 - 이론적 지원 과정은 과정 수강과 문헌 읽기로 구성되어 있음. 중등교육의 최근의 개혁과 변화하는 교사의 역할에 익숙해지도록 교육을 받음.
 - 인턴십의 요구에 부응하는지 결정하는 평가를 받고 기본 과정을 수료하게 됨.
- 교육학 마이너 과정
 - 협력 학교에서 반 년 동안 집중적인 풀타임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됨.
 - 중등학교에서 주간 3일을 가르치면서, 교육방법, 발달심리학 등 별도의 교사교육을 받게 됨.
 - 지식전달, 수업설계, 교육자료 분석 등을 주로 배움.
- 교육학 마스터 과정
 - 중등교육 자격을 갖춘 첫 번째 학위이며, 석사과정에 해당.
 - 교육학 마스터는 교육 및 학습 분야에서 교수 및 전문자격을 인정받게 됨. 즉 이론(강의, 과제, 연구)과 연계된 중등학교에서의 교육 자격을 가지게 됨.
 - 경험이 풍부한 교수의 집중 지도를 통하여 신호-분석-종합 등 교육실천의 문제에 관하여 연구능력을 증진함.

3) 초임교사를 위한 교육 연구 소개

- 네덜란드에서는 교직 중단자(stopper)-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여 교직을 그만두는 교사-, 교직 이직자(hopper)-소속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다른 학교로 자주 옮겨 가는 교사-가 많아 교육계의 문제가 됨.
- 이러한 중단자와 이직자의 문제가 교직 적응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여, 입직 초기의 적응도를 높이기 위한 초임교사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됨.
- 초임교사 교육은 1년 과정으로서 한 학기는 대학 수강 프로그램, 다른 한 학기는 현장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특히 현장 지원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전문가와 초임교사 간 멘토-멘티 관계를 설정하여 운영하며, 초임교사의 교직 적응도 향상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수업전문성 제고에 초점을 둬.
- 수업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에서는 수업문제를 해결하는 보편적인 해결책은 없으며, 따라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수업 상황과 문제를 분석하고 연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수업전문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업행동분석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 연구는 현재 국제적 비교 연구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음.
- 초임교사를 위한 집중적인 교육의 성과에 힘입어 교직 중단자와 이직자의 비율이 상당한 정도로 감소되었다고 함.

4) 수업행동분석 연구(ICALT)

- 수업행동분석 연구는 구체적인 수업 상황에서 작성된 교사용과 학생용의 수업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수업을 분석하고 종합하며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된 연구임.
- 수업 체크리스트는 특정교과에 국한되지 않는 수업 일반에서 추구되어야 할 행동 목표와 관련된 지표가 질문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계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계량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교사용 체크리스트는 30개미만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표는 3부분의 그룹으로 나누어지며, 각 그룹 지표 사이에는 심화된 위계가 존재함. 예를 들어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 발언과 분위기가 허용적인가? - 학생들에게 사고하는 방법을 가르치는가? - 학생들에게 문제를 다루는 법,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가르치는가?’와 같은 위계를 가짐.

- 또한 각 체크리스트 항목은 점수로 계량화되어 종합되는데, 특정 항목은 배점에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음.
- 학생용 체크리스트는 교사용 체크리스트를 보완하는 내용이자 학습자에게 교사의 수업행위가 어떻게 수용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됨.
- 학생용 체크리스트도 지표 항목이 점수로 계량화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특정 항목에 있어 배점의 가중치가 부여됨.
- 교사용과 학생용의 수업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수업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수업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향후 교사가 수업을 개선해 나가는 기반으로 삼게 됨.

5) 성과 및 시사점

- 초임교사 연수
 - 한국과 네덜란드는 교사 양성과 입직 체계가 상이하며, 초임교사의 교직 적응도에 있어서도 문제의식이 각각 다름.
 - 일반 대학의 학사과정을 졸업하고 대학원 교육학 석사과정을 마친 뒤 교사가 되는 네덜란드와 달리 한국은 사범계 대학을 통해 4년간의 교사 양성 과정을 거침. 입직후 대학원 수학은 개인 연찬활동으로 취급되지만 승진 가산점 부여 등 일부 유인책이 있음.
 - 한국의 교사 양성 과정은 가르칠 해당 학교급과 과목에 대한 전공과정과 별개로 참관실습, 실무실습, 교수실습 등을 거칠 뿐 아니라, 입직절차에 있어서도 이론, 수업시연, 심층면접 등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네덜란드의 경우 입직후 교육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연수는 없으며, 수업의 질 관리를 포함하여 현직 적응 등 제반 문제가 전적으로 개인에게 책임이 있음. 이러한 교육적 구조 속에서 흐로닝엔 대학교의 초임교사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된 것으로 보임.
 - 한국의 초임교사들은 입직 초기 수업전문성뿐 아니라 교무행정, 일반행정 등의 업무와 관련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음.
 - 한국의 초임교사들은 입직 추수연수, 직무연수, 수업공개, 수업연구대회 등을 통하여 수업전문성을 심화하고 있으며, 최근 도입된 수석교사를 포함한 선배교사들과의 멘토-멘티관계를 활용하기도 함.

- 한국은 초임교사들이 가지는 입직 초기 적응도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으나, 이들이 모두 체계적으로 조직·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초임교사들의 교직 가치관 정립, 교직 적응도 제고, 수업전문성 등 교직관련 능력 신장의 차원에서 (기존의 제도와 방법을 재구조화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초임교사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교사 전문성 신장

-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처럼 교사의 전문성 제고는 교육 질 관리에 있어서 관건적인 요소임.
- 네덜란드는, 교육청이나 학교측의 강제적인 연수 부과 등 교사의 질 관리를 위한 노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교사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 향상을 기대함. 다만 교사의 재고용 등이 학교장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이 존재함.
- 반면, 한국의 경우는 교육당국의 노력, 투자(교원 연수 및 연찬 부과)와 더불어 교사 개인의 연찬(자율연수, 대학원 진학 등)이 병행되고 있음. 최근 교원평가, 학교평가 등의 제도와 맞물려 교사 개인의 연수 활동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됨.
- 향후 한국은 교사의 자발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자기 연찬활동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하고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방안 강구가 필요함.
- 호로닝엔 대학교의 수업행동분석에 활용된 체크리스트는 제한적으로 도입,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계량적인 체크리스트, 수업상황에서 나타난 행동만을 관찰하여 모든 수업을 획일적으로 평가하거나 개선방안을 찾는 방법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호로닝엔 대학교 수업행동분석의 주요수단인 체크리스트는 교사와 학생의 관찰 가능한 행동만을 계량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수업기술을 향상하기 위한 한 도구일 수 있으나, 일련의 교육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하지 못하고 단절된 한 시간 수업의 일면적 상황을 과장되게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 한국의 교단에서 수업 분석을 위해 활용되는 언어분석 체크리스트, 일반적인 수업참관 체크리스트 등에 대한 보완적 차원의 도구로서 교사와 학생의 행동을 분석하는 유용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행정기관에 의해 시행됨으로써 가지게 되는 강제성과 획일성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면, 제한적인 범위에서 자발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임.

6) 주요 활동 사진



☞ 씨OO OOO 호로닝엔 대학교 총장과 환담



☞ 충남대 천OO 교수의 통역으로 주제 토론



☞ 본관앞에서 험O OOO OOOO 교수와 함께



☞ 호로닝엔 도서관을 둘러보기 위해 이동중



☞ 호로닝엔 대학 도서관내 한국 코너



☞ 도서관 내 한국 코너 입구. 전통 상차림에 부적절한 맥주



☞ 본관내 영국홀에서 대학관계자와 오찬



☞ 호로닝엔 대학교 기관선물 증정

[사진1] 호로닝엔 대학교 방문

다. 베르크만 고등학교(Werkman College)

- 방문 목적: 수업행동분석연구 참여 학교 방문
- 참가자 및 행사 내용

직	성명	행사내용	비고
교장	코 000	학교 소개 및 수업행동분석연구 참여 내용 안내	
교수	천00	통역	충남대

- 세부 일정: 2015. 1. 9.(금) 11:00~12:30

시간	일정	비고
11:00~11:30	베르크만 고등학교로 이동	
11:30~12:30	학교 방문(학교시설 및 학교경영 의견 교환)	통역
12:30~13:00	오찬장으로 이동	

- 위치: Stadslyceum, Nieuwe Sint Jansstraat 11, 9711 VG Groningen

1) 베르크만 고등학교 개요

- 베르크만 칼리지는 호로닝엔 시에 있는 고등학교임. 학교는 네덜란드의 예술가이자 인쇄업자인 Hendrik Nicolaas Werkman의 이름을 따서 지어짐.
- 학교는 네 개 이상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음. 학교 운동장은 따로 없으며 지역의 체육시설을 함께 이용함.
- 학생수는 1400여명이며 직원수는 150명이고, 학교의 행정업무를 맡아보는 스텝은 14명임.
- 학교에서는 대학사전학교, 일반중등학교, 중등직업학교 세 가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2) 베르크만 고등학교의 환경

- 고풍스러운 외양과 달리 실내 환경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음. 학생들의 작품을 이용하여 벽면을 장식하였음.
- 목공실습실, 과학실험실 등 주요 실험실습 교실은 2명의 교사가 공동 관리하며 수업 실시함.

- 음악실은 공연이 가능하게 2층 복층 공간에 무대와 관람석 등을 갖추고 있으며, 전자 오르간, 전자 기타 등 현대 악기와 컴퓨터 등을 갖추고 있음.
- 일반 수업교실은 컴퓨터, 빔 프로젝터 등 기기를 갖추고 있고, 환경관에 약간의 학생 작품을 첨부하여 놓았을 뿐 대부분 꾸미지 않았음.

3) 베르크만 고등학교 관계자와의 토론

[주요 토론 내용]	
○ 학생 활동 안내	○ 교사 근무 형태
○ 학교 교육의 질 관리	○ 학교 행정 지원 등
○ 교사 수업전문성 제고	

※붙임 1. 베르크만 고등학교(Werkman College) 대화록 참고

4) 성과 및 시사점

- 학생 성적 평가 결과에 대한 네덜란드의 학교와 학부모의 반응이 한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대조적임. 네덜란드는 대부분 자연스럽게 결과를 수용하고 교육활동의 질 관리를 위해 참고하는 수준에 그침. 그러나 한국은 학생성적 결과 공개에 의해 지역교육청간 과도한 경쟁, 학부모의 격렬한 반응, 여러 가지 부작용 등이 야기 됨. 이는 정부의 정책이 수용되는 과정에 있어서 네덜란드와 한국의 사회적 조건과 문화적 풍토의 상이함에서 비롯된 것이나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수용에 있어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학교가 지역 공동체의 체육시설을 공유하여 체육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예산의 절감만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수영장 등 학교나 교육청의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의 시설은 지자체에서 건설하고 학교와 지역주민이 공동 활용함으로써 교육과 생활체육 양 분야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음. 최근 국내에서도 지자체의 대응 투자 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수영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음.
- 수업과 연찬에 있어서 전적으로 교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점은 한국의 교육행정체제와 매우 상이함. 세밀하게 규정된 국가교육과정, 교사의 근무체제, 의무 연수 부과 등 교사의 자율성이 부족한 한국과 비교해 볼 때 향후 교원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만한 사항임.

5) 주요 활동 사진



☞ 베르크만 고교교원 휴게실



☞ 안전한 배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중인 학생들



☞ 음악실에서 창작-연주 수업중인 학생들



☞ 복층으로 구성된 음악실 관람석에서 수업 감상



☞ 복도에서 자유롭게 휴식중인 학생들



☞ 건물 순방중. 환경게시물이 학생작품으로 구성됨.



☞ 학생자전거 보관소. 학생들은 자전거 이용이 활발함.



☞ 기관선물을 증정하며 선물에 대해 설명

[사진2] 베르크만 고등학교

라. 우리교육청 주최 방문기관 관계자 오찬

- 방문 목적: 방문 관련 답례 오찬
- 참가자 및 행사 내용

직	성 명	행 사 내 용	비 고
교수	클OO OO	오찬	호로닝엔 대학교
교수	미O OO OOO		호로닝엔 대학교
교수	리OO OOOO		호로닝엔 대학교
교장	코 OOO		베르크만 고등학교
교수	천OO		충남대

- 세부 일정
 - 일시: 2015. 1. 9.(금) 13:00~14:30
 - 장소: 대학내 식당(Engelse Zaal)

마. 헤이그 이준열사 기념관

- 방문 목적 : 유럽 유일의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 참가자 및 행사 내용

직	성 명	행 사 내 용	비 고
관장	송OO	이준 열사 기념관 견학	
사무	이OO	"	



☞ 기념관장의 열정적인 설명



☞ 이준열사가 사용한 침실에서



☞ 기념관에 전시된 을사늑약 자료



☞ 헤이그 밀사에 대한 고종황제의 위임장



☞ 고종을 히로부미의 세상 속 새로 비유한 풍자화 등 당시자료



☞ 이준열사가 머문 여관의 가구와 관련 사진들

[사진3] 헤이그 이준 열사 기념관

- 위치 : Wagenstraat 124A, 1512BA, Den Haag, Netherlands
- 연락처 : +31-(0)70_356-2510, +31-(0)6-559-753-90

2. 독일

가. 독일의 국가 교육 제도

1) 초등교육

- 가) 6세에 입학하는 4년 과정임(*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주에서는 6년).
- 나) 초등교육에 해당하는 기초학교(Grund-schule)는 의무제, 4~6년 과정.
- 다) 진로탐색단계(Orientierungsstufe), 관찰단계(Beobachtungsstufe)임.
- 라) 초등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학교에서 5, 6학년을 다니면서 앞으로의 진로와 학교 유형을 결정할 수 있음.

마)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학교를 변경할 수 있음. 기초학교를 수료하면 주요학교, 실과학교, 김나지움, 종합학교 등 네 가지 형태의 중등 1단계 학교에 진학함.

2) 중등교육

가)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

- 국민이 알아야 할 기초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로 초등학생 중 1/3 정도가 진학함.
- 9학년을 마친 후 직업교육(Ausbildung)에 들어가는데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직업 학교나 직업전문학교 등을 다녀야 함.

나) 레알슐레(Realschule)

- 경제와 행정 분야에서 중급에 해당하는 직책을 갖도록 준비시키는 학교로 김나지움과 하우프트슐레의 중간 수준임.
- 6년 과정으로 10학년 졸업 후 직업전문학교(Berufsfachschule)나 전문고등학교(Fachoberschule)로 진학하여 상급 단계의 직업훈련을 받거나 김나지움 상급학년으로 편입함.

다) 김나지움(Gymnasium)

-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진학하는 전통적인 인문계 학교로 초등학교를 마친 학생 중 약 1/3이 진학함.
- 구 서독지역 김나지움은 5학년부터 13학년까지 9년 과정임.

라) 김나지움 상급 학년(Gymnasium Oberstufe)

- 11학년부터 13학년 학생들은 몇 개의 필수 과목을 제외하고는 주로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심도 있게 공부함
- 전공할 분야를 미리 선택·준비할 수 있어 대학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됨

마) 아비투어(Abitur)

- 대학 입학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김나지움 졸업 시험(* 아비투어 취득 후에도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음)

3) 고등교육

가) 독일의 대학들은 빌헬름 폰 훔볼트(1767-1835)의 교육철학에 깊은 영향을 받아왔음.

나) 독일의 고등교육기관은 교육과 연구를 통합하도록 계획된 종합대학과 이와 동급의 단과대학임.

다) 종합대학은 어떤 특별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떠한 필수과목도 없음.

라) 디플롬(Diplom), 마기스터(Magister), 국가시험(Staatsexamen) 과정으로 수료 과정이 이루어짐.

- 마) 교수가 되려면 박사 학위를 받은 후 교수 자격 취득 논문(Habilitation)을 써야 함. 디플롬이나 마기스터를 마친 후에 바로 박사 과정에 입학.
- 바) 대학수는 총 300여개로 일반대학교(Universität), 공과대학(Technische Universität), 교육대학(Pädagogische Universität), 미술대학(Kunsthochschule), 음악대학(Musikhochschule) 등이 있음.
- 사) 특수화된 고급기술대학 혹은 종합기술대학인 전문대학은 더 많은 실기 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기술·상업·사회사업·디자인과 농업분야에서 디플롬(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함.

나. 베를린 주교육부(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Jugend und Wissenschaft)

- 방문 목적: 독일의 교육체계 및 현안 이해
- 참가자 및 행사 내용

직	성명	행사내용	비고
소통담당	린○	독일의 교육체계 및 현안 소개	
행정담당	쉐○	"	

- 세부 일정: 2015. 1. 12.(월) 09:00~11:00

시간	일정	비고
09:00~10:00	독일의 교육체계 및 현안 소개	
10:00~11:00	양국 교육체계 비교 및 의견 교환	

1) 독일 교육 관련 토론

[주요 토론 내용]	
○ 독일의 학교 시스템 안내	○ 학교 책무성 관리 정책
○ 베를린 주의 주요 교육 현안	○ 교사 연수 시스템
○ 베를린 주의 교육 중점 정책	○ 발도로프 공동체학교
○ 진로교육 관련 정책	○ 기타 교육 풍토 등

※붙임 2. 베를린 주 교육부 대화록 참고

2) 성과 및 시사점

- 독일은 교육에 관한 한 주정부가 전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연방 정부 차원의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 통일된 기준의 부과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반면 한국은 중앙집권적 교육행정 체제에서 지방자치 영역을 어떻게 규정하고 확대해 나갈 것인가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음. 국가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정책적 요구가 제기됨을 확인함.
- 학교의 책무성 관리 시스템 및 학교 자율성 보장과 관련된 행정체계는 양국의 사회문화적 배경, 역사적 맥락이 매우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움.
- 독일은 직업교육과 인문 진학교육의 조기 분리에 반발하여 전인교육과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공동체학교(게마인샤프트 슐레)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한국은 입시 위주, 성적 위주의 기존의 공교육에 대한 반발로 대안학교와 공교육 혁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 학부모, 교원 등의 불만과 문제를 파악하고, 처리하는 소통담당관 직제는 향후 한국 교육과 행정이 추구해야 할 거버넌스 확대와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항임.

3) 주요 활동 사진



☞ 베를린 주 교육부 청사 건물



☞ 베를린 주 교육부 린네 소통담당관의 영접



☞ 학부모, 교직원 등 민원 해결 및 전달을 하는 소통담당관



☞ 독일의 교육체계, 현안 등에 대한 세미나 진행



☞ 진지한 논의 중간 중간에 공감과 동의의 웃음



☞ 베를린 주 교육부 소통담당관, 학교행정담당관과 기념촬영

[사진4] 독일 베를린 주 교육부

다. 발도로프 학교(Freie Waldorfschule Berlin-Kreuz)

- 방문 목적 : 독일 혁신학교 방문
- 참가자 및 행사 내용

직	성명	행사내용	비고
행정실장	OOO	학교 소개 및 시설 순방	

- 세부 일정 : 2015. 1. 12.(월) 13:00~15:00

시간	일정	비고
13:00~15:00	학교 소개 및 교실 등 시설 순방	

- 학교 소개 자료

학교개요	주소	Ritterstr. 78, 10969 Berlin
	홈페이지	www.waldorfschule-kreuz.de
	○1985년 설립 ○이사: Prof. Dr. Martina Plümacher	
주요연수 콘텐츠	발도로프학교 창시자인 루돌프 스타이너박사의 인지학을 기본 바탕으로 교육하며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요구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자기 소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특징	○ 예술적인 장인정신(Artistic craftsmanship)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학생	

	<p>의 개성을 파악하도록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과 학습평가는 물론 실시되지만 학생들 간의 석차는 매기지 않는 대신 인성과 타인과의 조화능력을 종합한 서술형평가서를 받음. ○ 학교 운영도 교사와 학부모의 회의에서 결정되며 교장이라는 직책조차 없는 철저한 자율학교임. ○ 13학급(학년) 약 400명의 학생과 50명의 교사, 관리 및 기술직원이 있음.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l : +49(0)30 / 615 10 10 - 0 ○ e-mail : info@waldorfschule-kreuzberg.de

○ 위치: Ritterstr. 78, 10969 Berlin

1) 학교 시찰

[주요 시찰 내용]	
○ 주요 건물 및 교실 배치	○ 학생 복지 시설
○ 교실 등 교육적 환경	○ 수업 관찰 등

※ 붙임 3. 발도르프 슐레 크로이즈 (Freie Waldorfschule Berlin-Kreuz) 시찰기록 참고

2) 성과 및 시사점

- 하나의 교육철학에 기초한 초중고 통합학교가 공교육 체제 내에 존재하며, 정부의 동등한 지원으로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 교육의 획일성 극복과 공교육 강화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볼만 함.
- 학교 건물이 각기 독립적으로 건축되어 있으나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된 점은 매우 좋았음. 노작교육, 예술교육 등을 위한 공간과 기구의 확보도 눈여겨 볼만한 부분임.
- 채광을 고려한 식당 건축, 접이식 이동용 책상 등 교실 공간 활용을 고려한 기구, 옷걸이 등 학생 편의적인 배려 등은 한국의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참고할 부분임.

3) 주요 활동 사진



☞ 학교 내 메인 홀. 학생 다모임이나 공연장소로 활용



☞ 목공 실습실. 발도르프교육은 노작교육을 강조함



☞ 1학년 교실. 책걸상의 이동이 자유로워 공간 활용도가 높음



☞ 학급 규모가 대체로 13명 안팎임



☞ 학교소개를 진행한 크로이즈 발도르프 슐레 행정실장



☞ 음악실 일부 모습. 공연을 위한 작은 무대가 있다.



☞ 식당 천장. 채광을 위해 유리로 되어 있다.



☞ 발도르프 학교 앞에서 현지통역과 함께

[사진5] 발도르프 슐레 크로이즈

3. 프랑스

가. 프랑스 국가 교육제도

1) 초등교육(Standard I - IV)

- 가) 초등학교 1학년인 6세부터 의무교육임. 하지만 유치원들이 초등학교와 연계되어 있어서 많은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를 3세 정도부터 보내기 시작함. 몇몇은 심지어 2세 때부터 본질적으로 보육원인 classe pré-maternelle에 보냄.
- 나) 프랑스어, 수학, 자연과학, 역사, 지리학 등 많은 과목을 가르치는 한 명(혹은 두 명)의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침.
- 다) 공립학교에서는 종교 교육을 하지 않음. 교육 종교 분리론은 프랑스 교육의 주요 지침 중 한가지임.
- 라) 국가의 기능 및 조직과 자유·평등·박애를 가르치기 위한 윤리, 사회 과목이 있음.
- 마) 2004년 3월, 프랑스 정부는 사상 전환과 민족 간의 평화를 조장하기 위해 학교와 공공교육기관에서 눈에 띄는 종교적 상징들을 금지하였음.

2) 중등교육(Form I -III)

- 가) 프랑스의 중등교육은 두 개의 학교로 분리됨.
 - 초등학교를 마친 직후, 한국의 중학교에 해당되는 콜레주(collège) 4년 기간.
 - 한국의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리세(lycée)에서 나머지 3년 기간.
- 나) 중등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학사 학위를 받음.
- 다) 바끄(bac)라고도 불리는 바칼로레아는 학생들이 대학 진학, 수업준비 혹은 전문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고등학교 졸업장임.
- 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치르는 일반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général)에는 세 종류가 있음.
 - S(série scientifique)는 자연과학, 물리나 수학에 관련되어 있다. 한국의 이과에 해당.
 - ES(série économique et sociale)는 경제와 사회과학과 연관됨. 이과와 문과의 중간으로 볼 수 있음.
 - L(série littéraire)은 프랑스어, 외국어, 철학과 관련됨. 한국의 문과에 해당.
- 마) 그러나 이러한 série들은 완전한 전문화가 아니고 모든 교수는 그의 관할구역 안에서 그가 원하는 과목과 부합한다면, 구역 내 어느 대학이라도 통합을 할 권리가 있음

바) L시리즈를 이수한 학생은 고등학교 교육만으로 과학 대학에서 성공할 만큼의 충분한 과학적 지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바칼로레아와 대학의 과(분야)가 다른 경우는 매우 적음.

나. 주 프랑스 이OO 한국대사 예방

1) 대사 면담

[주요 대화 내용]

- 프랑스의 위상 및 프랑스어 교육
- 한국내 프랑스어 교육 현황
- 프랑스내 한국어 교육 현황
- 교육청간 교류 추진 상황
- 교육청간 교육 교류 지원 등

※붙임 4.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 이OO 대사 예방 대화록 참고

2) 성과 및 시사점

- 충청북도교육청과 꼬레테이교육청간 교육교류에 대해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이 지원과 협력을 약속함.
- 프랑스와 프랑스어의 국제적 중요성을 알고 향후 더 적극적인 교육적 노력이 필요함을 공감함.

3) 주요 활동 사진



☞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현판



☞ 환영 인사를 나누고 있는 대사



☞ 환담중인 이OO 대사와 김OO 교육감



☞ 접견실에서 대화중인 대사와 방문단



☞ 이OO 대사에게 선물 증정



☞ 대사관 홀에서 대사, 한국교육원장과 함께 기념 촬영

[사진6]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 방문

다. 크레테이 교육청 주최 방문단 조찬

- 방문 목적 : 국제 교류 MOU 체결 관련 협의 및 조찬
- 참가자 및 행사 내용

직	성명	행사 내용	비고
교육감	베OOOO O	크레테이 교육감 조찬 영접 및 국제 교류 MOU 체결 관련 협의	크레테이 교육청
국제협력국장	마OO O OO		교육감 자문 장학관
국제협력국장 보좌관	바OOO OOO		아시아 교육 협력 담당관
교육원장	이OO		주 프랑스 한국교육원
통역	현지통역		주 프랑스 한국교육원

○ 세부 일정 : 2015. 1. 14.(수) 08:30~09:45

○ 위치 : 4 Rue Georges Enesco, 94000 Créteil(파리 동남쪽 소재)

1) 크레테이 교육감 관사 초청 면담

[주요 협의 내용]

- | | |
|-------------------|-----------------------|
| ○ 방문 취지 및 방문단 소개 | ○ 교육자치제도 이해 |
| ○ 샬리 에브도 테리 관련 대화 | ○ 교육청간 교육 교류 추진 |
| ○ 크레테이-충북 교육청 소개 | ○ 고교간 자매결연 및 향후 교류 확대 |
| ○ 양국 교육현안 및 정책 논의 | |

※붙임 5. 크레테이 교육청 교육감 조찬 면담 대화록 참고

2) 성과 및 시사점

- 교육감 선출 및 선임, 학력 제고 정책, 샬리 에브도 테리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상호 대화를 기반으로 양국의 교육체제와 현안을 비교 이해하게 됨.
- 프랑스 교육당국이 시행하는 학생 수용 정책과 각 학교의 교육적 출발점을 중시하는 정책 등을 통해 프랑스가 추구하는 평등교육의 실재를 파악함.
- 고교내의 한국 아틀리에 운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초중고대학교 연계 한국 교육교류 확대, 교사파견 등 크레테이 교육청이 추진하려는 교육 교류 계획과 구상을 확인함.
- 현재 추진중인 청주외국어고등학교-플로라 트리스탕 고등학교, 한국호텔관광고-에밀리 뒤 샬레 고등학교간 자매결연 지원, 크레테이교육청의 한국 교사파견 지원, 크레테이교육청-한국교원대학교간 교류 지원 등 교육교류 확대에 따른 상호 지원 및 협력 합의.

3) 주요 활동 사진



☞ 김OO 교육감과 끄레테이 교육청 질 교육감



☞ 끄레테이교육청 관계자와 조찬 면담 진행



☞ 충청교육의 비전을 설명하는 김OO 교육감



☞ 양국의 교육 이해와 교류 확대를 축하하며



☞ 충청북도교육청과 끄레테이교육청 선물 교환



☞ 양 교육청 관계자 기념 촬영

[사진7] 끄레테이 교육청 교육감 초청 조찬 면담

라. 플로라 트리스탕 고등학교(Lycee Flora Tristan)

○ 방문 목적 : 청주외고 자매결연 예정학교 방문 및 교장단 면담

○ 참가자 및 행사 내용

직	성명	행사내용	비고
교장	에O 000	학교 소개 및 시설 견학	
교감	모000 000		
국제협력국장	마00 0 00		
국제협력국장 보좌관	바000 000		
교육원장	이00		주 프랑스 한국교육원
통역	현지통역		주 프랑스 한국교육원

- 세부 일정 : 2015. 1. 14.(수) 10:15~11:15
- 학교 특징 : 일반 고등학교
- 위치 : 27 Rue des Hauts Roseaux, 93166 Noisy-le-Grand(파리 동쪽 소재)

1) 주요 협의

[주요 협의 내용]

- | | |
|---------------------|-----------------------|
| ○ 방문 취지 및 방문단 소개 | ○ 청주외고 외국어(프랑스어) 교육 |
| ○ 그레테이교육청 한국교육교류 계획 | ○ 교육청간 교육 교류 추진 |
| ○ 방문학교 한국어교육 현황 | ○ 고교간 자매결연 및 향후 교류 확대 |

※붙임 6. 플로라 트리스탕 고등학교(Lyceé Flora Tristan) 대화록 참고

2) 성과 및 시사점

- 그레테이 교육감과의 조찬 회담에서 거론된 한국과의 교육 교류 계획 전반에 대해 국제협력담당관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확인 및 이해하는 과정을 거침.
- 플로라 트리스탕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한국 아틀리에, 한국어 교육, 대학진학과의 연계 등 단위 학교에서 진행 중인 한국어 교육 현황과 한국어 교육 확대 추진 계획을 파악함.
- 청주외국어고등학교- 플로라 트리스탕 고등학교간 자매결연 체결 지원을 포함한 충청북도교육청-그레테이교육청간 교육교류 확대 지원 및 협력 재확인.
- 교육청간 교류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탐색 및 협의 과정을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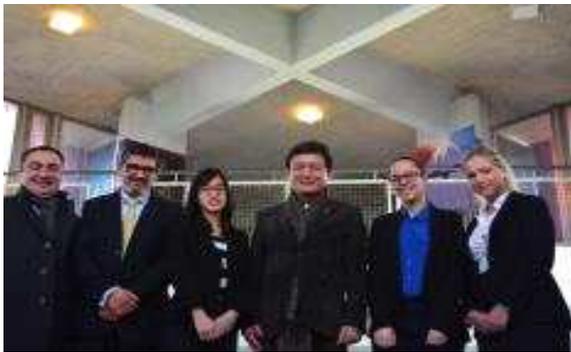
3) 주요 활동 사진



☞ 김OO 교육감을 영접중인 플로라 트리스탕 고교 교장



☞ 방문교의 중앙 홀. 학생전체모임이나 공연장소로 이용



☞ 방문단을 에스코트한 학생들과 함께



☞ 그레테이교육청 및 학교 관리자와 관계자 협의



☞ 학교 협의를 마치고 관계자 기념촬영



☞ 밝은 색상의 학교건물을 배경으로 기념촬영

[사진8] 플로라 트리스탕 고교 방문

마. 에밀리 뒤 샤텔레 고등학교(Lyce Polyvalent Emilie Du Chatelet)

○ 방문 목적 : 한국호텔관광고 자매결연 예정 학교 방문 및 오찬

○ 참가자 및 행사 내용

직	성명	행사내용	비고
교장	발OO 000	오찬 후 학교 소개 및 시설 견학 및	
교감	안O 00		
호텔 요식 담당	스OO 0000		
교사	피OO 00		
국제협력국장	마OO 0 00		
국제협력국장 보좌관	바OOO 000		
교육원장	이OO		주 프랑스 한국교육원
통역	현지통역		주 프랑스 한국교육원

○ 세부 일정: 2015. 1. 14.(수) 12:00~15:00

시간	일정	비고
12:00~13:30	교장단과 에밀리 뒤 샬레레 고등학교 오찬	
13:30~14:30	교장단 면담 및 시설 견학	
14:30~15:00	종합 평가: 국제협력국장 및 보좌관과의 면담	

○ 학교 특징 : 개교 4년된 신규학교로 현대식 건축, 우수 교육 환경

구분	학생(명)			교직원			
	일반계 (문과, 경제사회과, 과학과)	호텔요식업	소계	일반계	호텔요식계	행정	소계
인원	650	150	800	75	10	10	95

○ 위치 : 35 Cours du Danube, 77700 Serris(파리 동부 소재)

1) 평가 및 종합협의를

[주요 협의 내용]

- 에밀리 뒤 샤텔레 학교 소개
- 오찬 진행
- 요리대회 준비실 참관
- 학교시설 순방
- 교육교류 종합 협의
- 한국어교육 등 교류확대 계획
- 고교간 자매결연 지원
- 교류 확대 MOU 체결 추진

※붙임 7. 에밀리 뒤 샤텔레 고등학교(Lyce Polyvalent Emilie Du Chatelet) 참고

2) 성과 및 시사점

- 에밀리 뒤 샤텔레 고교의 교육 개요, 시설, 호텔 및 조리 관련 학과의 실제 운영 형태, 최근 발생한 샤텔레 에브도 테리 관련 교육 등 전반적 교육 체제와 현황을 파악함.
- 방문단 영접과 오찬 서빙 등의 일정 진행을 호텔학과 학생들이 실습하는 과정으로 활용함. 오찬 준비 및 부커스 요리경연대회 대비 훈련 등 조리학과 교육이 철저하며, 호텔 구조에 맞춘 학교 공간 배치 등 실습위주의 교육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취업에 필요한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함.
- 꼬레테이 교육청 국제협력 국장을 통해 꼬레테이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과의 교육 교류 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양국 교육청간 상호 협력과 지원 의사를 재확인함.
- 꼬레테이교육청은 초중고대학교를 연계한 한국 및 한국어 교육 기반 구축, 고교간 자매결연 추진, 한국아틀리에 및 한국어교육과정 운영, 교사 파견, 한국교원대학교와 교류 추진 등 한국과의 교육교류 확대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충청북도교육청은 청주외국어고등학교-플로라 트리스탕 고등학교,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에밀리 뒤 샤텔레 고등학교간 자매결연 지원, 꼬레테이교육청의 교사 파견시 행정 지원, 한국내 프랑수어교육 확대방안 탐색 등 포괄적인 협의와 협력 의사를 전달함.
- 충청북도교육청-꼬레테이교육청간 상호 교육교류와 협력을 위한 MOU 체결 추진을 협의하고, 한국교육원을 통한 초안 교류 등 사전 진행 절차에 대해 합의함.

3) 주요 활동 사진



☞ 에밀리 뒤 샤틀레 고교 방문 기념 촬영



☞ 호텔 바 실습장에서 환영 리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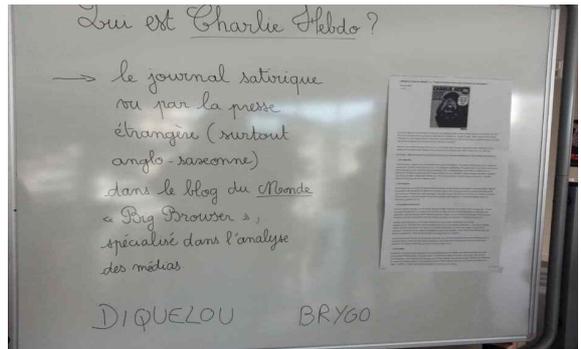
☞ 오찬 요리를 해준 학생들과 함께



☞ 오찬 요리를 해준 학생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다.



☞ 호텔 인턴실습중인 호텔학과 학생들과 함께



☞ 샤를리 에브도 테러사건 관련 교육 자료



☞ 교육교류 평가 및 종합 협의 진행



☞ 고교를 떠나기 앞서 마무리 기념 촬영

[사진9] 에밀리 뒤 샤틀레 고등학교

4. 영국

가. 영국의 국가 교육제도

1) 초등 교육(Standard I - IV)

- 가) 초등교육은 보육학교(2-5세)·유아학교(5-7세) 및 초등학교(7-11세)에서 실시함.
- 나) 의무교육 이전 교육은 지역 교육청(LEA)의 재정 지원을 받는 탁아 시설이나 지역 초등학교의 신입생 과정, 보육학교, 보육 시설 및 그 밖에 정부재정의 지원을 받는 사설 보육 기관 등에서 이루어짐.
- 다) 1944년에 발효된 교육법에 의해 모든 어린이들은 무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얻게 되었고, 5세부터 16세까지 의무 교육을 받게 되었음.
- 라) 초등학교(primary school)는 대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영아학교(primary school)와 초등학교(junior school)로 나뉨
- 마) 초등학교는 보통 5살보다 어린 학생들에게 첫 학년을 배정하는데, 이를 유치반 1학년(junior school)이라 부름
- 바) 몇몇 지방에서는 초등학교의 마지막 2학년과 중등학교(secondary school)의 첫 2학년이 중학교(middle school)라는 형태로 합쳐져 있으나 아이들이 11세에 중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임.

2) 중등학교 교육(Form I -III)

- 가) 초등교육을 마친 학생들은 11세나 그 직후에 실시하는 시험에 따라 여러 유형의 중등학교에 배치됨.
- 나) 중등교육은 문법학교·기술학교·현대학교·종합학교와 사립학교인 퍼블릭스쿨에서 실시함.
- 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반적 교육이 실시되는 모던 스쿨에 진학하여 15세까지 교육을 받음.
- 라) '일레븐 플러스'(eleven-plus)라는 시험의 점수에 따라 어떤 학생들은 테크니컬 스쿨에 입학하여 숙련공 훈련을 받음.
- 마) 3개로 분리된 영국 중등교육 체제의 3번째 유형은 그래머 스쿨(인문계 중등학교)로서 전통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중등교육기관이며, 대학진학준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함.
- 바) 모던 스쿨, 테크니컬 스쿨, 그래머 스쿨의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종합중등학교

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음.

사) 11세에 시험을 쳐서 장래를 결정하는 것은 기회균등정신에 비추어 타당치 못하다는 이유로 전체 중등학교 졸업자를 같은 학교에 수용하여,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행한다는 의도에서 종합학교를 설립하였음.

아) 영국에서는 공교육과는 분리된 매우 중요한 독립 학교가 있음. 이들 독립학교들은 '퍼블릭 스쿨'(public school)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들 중에서 이튼 고등학교나 해로 학교는 오랫동안 국제적으로 높은 명성을 유지해옴.

나. 킹스톤 대학교(Kingston University)

- 방문 목적: 어학연수 기관 MOU 체결
- 참가자 및 행사 내용

직	성 명		행사 내용	비 고
예술 사회학과 학장	마O 000		MOU 체결	MOU 체결자
부총장	대000 0000			
사업개발부서장	제00 00			
사업개발 담당자	에00 000 00			
충북 연수 담당자	엘00 00			
사업개발 직원	케O 00			
마케팅 담당자	조00 00			
어학연수 강사	레00 0000			
행정 담당자	프000 000			
행정 직원	캐00 00			
장학사	진로인성교육과	정00	MOU 체결식 참석	어학연수 단장
교사	대소초 외 17교	강00 외 17명		어학연수단

- 세부 일정
 - 일시 : 2015. 1. 15.(목) 09:30~11:10
 - 장소 : Lower Grand Hall, Kingston County Hall
 - 일정 : 마O 000 학장 행사 진행

시간	일정	진행자	비고
09:30~10:00	사전 면담	교육감님, 마O 000 학장, 대000 맥000 부총장	
10:00~10:05	대학측 직원 소개	마O 000 학장	
10:05~10:10	방문단 소개	교육감님	
10:10~10:20	환영사	마O 000 학장	
10:20~10:30	인사말	교육감님	
10:30~10:40	MOU 체결	교육감님, 마O 000 학장	
10:40~10:50	단체사진	참가자 전원	
10:50~11:10	인사 나누기	참가자 전원	
11:10~	폐회		

○ 학교 정보

구분	내 용	비고
건학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 권리인 고등교육 참여 촉진 - 탁월한 교수·학습법 추구 - 학생 및 직원의 창의적 잠재력 실현 - 사회와 경제에 공헌할 수 있는 학생 양성 	
운영자	- 총장 및 21명의 이사회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99년 Kingston Technical Institute으로 설립 - 1917년 Gipsy Hill 교육대학교 개교 - 1926년 교육위원회로부터 공대 승인 - 1951년 Penryhn 街 캠퍼스 개교(총학생수 3,214명) - 1957년 교육부로부터 공대 승인 - 1963년 Gipsy Hill 대학 교육대학으로 정식 인정 - 1970년 공대와 인문대가 통합하여 Kingston Polytechnic으로 교명 변경 - 1975년 Gipsy Hill 대학교와 Kingston Polytechnic 통합 - 1992년 Kingston University로 교명 변경 	
현황	- 학생: 20,668, 유학생: 3,725, 교직원: 2,146, 학부: 5종, 캠퍼스: 4곳, 학비보조금: £2억3백만, 교육관련 전공: 유아 및 초등교육	
대학	부총장	학장
간부	대000 0000 부총장	마O 000 학장

- 위치 : 27 Rue des Hauts Roseaux, 93166 Noisy-le-Grand(런던 남서쪽 소재)

1) 학교 개관

- 1899년 개교/ 학생수 2만 4000여명/ 공립 종합대학 으로 총장 및 21명의 이사진 이 학교 운영.
- 런던 남서쪽에서 가장 큰 대학교임. 1899년 킹스톤 기술학교(Kingston Technical Institute)로 최초 설립. 1970년 킹스톤 기술학교와 1890년대 세워진 킹스톤 미술학교(School of Art in Kingston)가 통합해 킹스톤 폴리테크닉이 됨. 1992년 고등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제정된 고등교육법(Further and Higher Education Act)에 따라 종합대학으로 승격.
- 6개의 단과대학으로 구성. 예술&디자인 대학의 명성이 높음. 경제학, 교육학, 미술과 디자인, 인문학, 법학, 생명공학, 수학과 통계학, 운동과학, 경영, 지리학과 지구과학, 환경학 등에 학사 및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있음.
- 예술과 사회과학, 지구과학, 지리학 등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펜틴로드(Penrhyn Road) 캠퍼스, 간호학, 법학, 경영학과가 있는 킹스톤 힐(Kingston Hill) 캠퍼스, 예술&디자인학부가 있는 나이츠 파크(Knights Park) 캠퍼스, 공대가 있는 로햄턴(Roehampton) 캠퍼스 등이 있음.
- 2008년 영국의 주간지 <선데이 타임스> 선정 '교육부문 120개의 영국 대학' 가운데 32위. 영국 런던의 일간지 <가디언> 선정 '2010년 대학 가이드 예술& 디자인' 분야에서 21위. 5개의 미국 대학 및 108개의 유럽 대학과 교류관계를 맺고 있음. 우리나라의 홍익대학교, 서울대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

2) 성과 및 시사점

- 업무 협약서 체결
 - 충북교육청과 킹스톤 대학간의 3개 협약 원칙과 4개 부문의 협력 분야를 합의하고 3년간 유효한 협약서를 체결함.
 - 3개 협약 원칙 :
 -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연수, 연구, 자문, 프로그램 개발, 교사 해외연수, 프로그램 평가 등의 업무에 대하여 협력 및 합작.
 - 협력 조항 일체는 양 기관의 특성과 구성, 가용자원 및 기관내 기획과정 존중.
 - 협력활동에 책임을 이행하여 가시적 성과를 내기로 합의.

- 4개 협력 분야 :

- 교사 연수 기획
- 공동 연구
- 공동 직원 개발 프로그램
- 자문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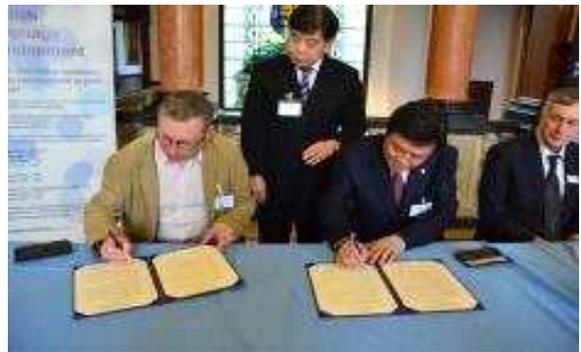
○ 영어 연수자 일동 격려

- 단장 외 18명의 현직교사 영어 어학 연수자 격려.
- 강의, 과제, 연수 내용 등 어학연수와 관련된 전반적 상황 보고.
- 연수생들의 연수 만족도와 애로 사항을 파악, 관련된 건의 청취.
- 킹스톤대학교 어학연수를 포함한 향후 어학연수 발전 방안 토론.

3) 주요 활동 사진



☞ 교육감을 영접중인 킹스톤 대학교 부총장과 예술사회 학장



☞ 충청북도교육청-킹스톤대학교 업무협약서 체결 서명



☞ 양 기관 선물 교환을 마친 후



☞ 업무협약서 체결을 마친 후 방문단 기념 촬영



☞ 어학연수단 선생님들과 함께



☞ 업무 협약서 체결 후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누다.



☞ 킹스턴 대학교 부총장과 환담중 파안대소



☞ 관계자의 안내로 대학 주변을 둘러보다

[사진10] 충청북도교육청-킹스턴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붙임 8. 충청북도교육청-킹스턴 대학교 업무 협약서 참고

다. 애슐리 초등학교(Ashley C of E Primary School)

- 방문 목적 : 우수교육기관 방문
- 참가자 및 행사 내용

직	성 명	행 사 내 용	비 고
교장	리OO O	학교 소개 및 시설 견학	킹스턴 대학교
직원/강사	에OO OOO OO		

- 세부 일정 : 2015. 1. 15.(목) 13:00~14:30
- 학교 특징 : 자기주도학습, 전인교육, 환경교육 우수교육기관
- 위치 : 35 Cours du Danube, 77700 Serris(런던 남서쪽 소재)

1) 학교의 특징

○ 학교 교육목표와 가치교육

- 교육 미션

- 아이들이 전체적 잠재력을 성취하면서 독립심과 자존감을 기르는 행복하고 배려적이며 기독교적인 환경을 제공함.

- 학교 목표 : 학교는 부모와의 협력 속에서 다음을 지향함.

- 아이들이 독립적 학습자가 되는 데 필요한 기술의 진보를 획득하도록 보장한다.
- 모든 아이들이 성공을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높고 성취할 수 있는 기대를 유지함으로써 아이들의 전체적 잠재력을 확장하도록 보장한다.
- 긍정적인 자아상과 자존감이 확고해지도록 보장하는 정신, 신체, 영혼과 상상에 있어서의 '전인적 아동'을 기른다.
- 기독교적인 믿음의 가치를 촉진하고 아이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와 사회내의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도록 돕는다.
- 모든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이 학교에서 능력, 인종, 성별, 종교적 신조와 상관없이 가치롭고 행복하며 안전함을 느끼도록 보장한다.

- 학교 윤리

- 애설리 학교의 구성원은 윤리가 구체적이라고 믿음. 윤리를 웃는 얼굴, 명랑한 아침인사로 파악한다. 고맙다, 잘 했다고 말하는 문화로 생각한다. 누군가를 위해 문을 잡아주는 것, 친구가 다쳤거나 넘어졌을 때 돌봐주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여긴다. 운동장에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뿐 아니라 반성 시간에 조용한 기도와 관련된 것으로 인식한다. 매일의 사소한 것들을 기억하거나 상황이 엉망이 되어 갈 때 상황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며, 상황을 올바르게 만들려는 노력으로 판단한다.

- 학교 가치교육

- 학교 윤리를 향하여 애설리 학교는 이웃 학교들과 클러스터(the Bridge Partnership)를 만들어 월별 가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다음은 기존에 추진되거나 앞으로 추진할 프로그램의 가치항목들이다. :

2014년 9월 - 2015년 7월 : 소속감, 우정, 자유, 평화, 정직, 단순성, 자신감, 상호협력, 책임감

2015년 9월 - 2016년 7월 : 존중, 행복, 단결, 사랑, 희망, 신뢰, 사려 깊음, 감사, 질, 공정, 용기

- Ecoschool(지속가능성) 교육

- 애설리 학교는 세계의 선도적인 환경 학교중 하나로 인정받았음. 2009년 지속 가능한 에너지 분야의 노력으로 저명한 Ashden 상을 수상. 2012년 유럽 위원회가 기금을 대는 U4 Energy 상 수상. 2013년 11월 알프스에 대한 지속가능성 탐색 분야의 노력으로 애설리 학교의 6명이 교육 비즈니스 상의 교육적 방문 부문 수상. 친환경 학교를 지속적으로 추구한 결과 '초록 깃발' 지위를 가지게 됨.
- 지속가능한 삶과 배움은 지속가능한 삶의 요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반 학기 단위의 주제와 함께 학교 교육과정과 모든 일의 핵심임. 학교는 에너지를 개발하고,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 신경을 쓰는 환경적으로 깨어 있는 개인을 추구하며, 개인과 단체, 지구적인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를 희망함. 이것은 Ofsted(학교 감독 기관)에 의해 지지받는 접근법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은 학습자들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복잡하고 변화하는 세상에서 효과적인 시민이 되기 위해 기술과 지식, 이해를 습득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을 통하여 사람들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으로, 지역적이고 지구적으로 미래의 지구를 파괴함이 없이 지금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일을 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지식과 가치, 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Ofsted, Sustainable Development in Learning and Skills Inspections, February 2012.)

○ 학교 환경

- 태양광 발전, 다목적실 태양광 채광, 건물내 자동 소등 등 에너지형 건축물로 설계 되어 있음.
- 환경계시판은 아동의 프로젝트 학습 결과물, 가치 활동 결과물, 슈퍼 데이 등 교육과정과 연계된 아동 학습 작품으로 전시되어 있으며, 주기적으로 교체됨.
- 체육활동을 위한 잔디 운동장(주변에 닭, 양 등을 기름)을 갖추고 있으나 건물 사이의 공간도 '몸으로 익히는 수학', '다양한 움직임 교육'을 위해 활용하고 있음.
- 다목적실은 연극 공연, 전체 모임, 식당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벽면은 학생들의 다양한 협업 작품이 전시되어 있음.

○ 지역과 함께 하는 교육

- 야외활동의 날을 운영하여, 지역의 환경과 문화를 탐색하고 지역 공동체의 일원

으로서 아동 개개인의 정체성을 체험케 함.

- 학교는 지역의 관공서, 시민단체, 학부모와 협력하여 아동이 지역을 알고 체험함으로써 시민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함.
- 야외 활동시 예를 들어 낚시를 해보며, 지역의 강에 나타나는 어종을 탐색하고, 물고기의 보호를 위해 할 일을 생각하는 등 지역화교육과 환경교육을 결부시킴.
- 학부모는 학교경영에 주체적으로 참가하며, 요리실습 등 교육활동의 보조자 일뿐 아니라 바자회 등을 통한 경제적 후원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함.

2) 성과 및 시사점

- 애설리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탐색, 조사, 질문 등으로 번역되는 Inquiry 중심으로 구성됨. 따라서 아동에게 호기심을 유발하고, 관련된 탐색과 활동을 촉진하며, 수업이 구체적인 프로젝트 학습으로 연결됨. 교육과정 재구성을 시도할 때 이러한 Inquiry 중심의 교육과정도 시도해볼 만하다 생각됨.
- 22개로 구성된 가치 덕목을 중심으로 2년 주기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매월 하나의 가치와 관련된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나라 가치관 교육, 윤리(도덕)교육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데 있어 시사적임. 특정 교실과 교과에 한정된 윤리(도덕) 교육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교육으로 확대하고 활동 중심으로 가치교육을 한다는 점은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판단됨.
- 세계시민으로서, 지구온난화 등 임박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환경 교육의 수범을 보이고 있는 애설리 초등학교의 사례는 초록 학교 공약 등을 포함한 도교육청의 환경교육 강화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임.
- 애설리 초등학교의 거의 모든 수업은 활동중심의 프로젝트로 이루어짐. 따라서 아동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연관 주제를 탐색하며, 적극적으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게 됨. 기존의 지식전달형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 배움 중심의 수업을 혁신해 나가기 위해 프로젝트 수업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 애설리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관공서, 시민단체 등 지역의 인적 자원의 교육 참여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제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교육을 펼쳐나가는 것은 향후 혁신학교가 추구할 마을공동체교육, 지역화교육 등과 관련하여 참고할 사례가 될 것임.

3) 주요 활동 사진



☞ 교장실에서 학교의 목표와 현황 설명을 듣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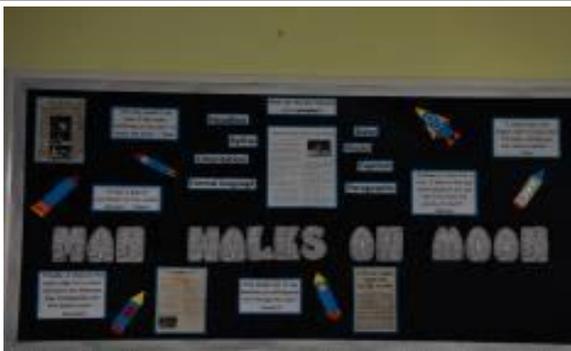
☞ 학습활동 결과물로 빼곡한 복도를 둘러보다.



☞ 슈퍼히어로 데이 행사 결과물



☞ 교실환경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학습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 달 프로젝트 학습 관련 자료로 구성된 학급 게시판



☞ 학부모와 함께 하는 요리 실습 시간



☞ 에셀리 초등학교 아이들. 표정이 밝다.



☞ 다목적실에서 기념 촬영

[사진11] 에셀리 초등학교

라. 교육감님 주최 어학연수단 만찬

- 목적 : 어학연수단 격려 등
- 참가자

순	소속	직	성명	비고
1	진로인성교육과	장학관	유OO	
2	대소초 외 17교	교사	강OO 외 17명	

- 세부 일정
 - 일시 : 2015. 1. 15.(목) 18:00~20:00
 - 장소 : 런던 시내 한국 식당(한정식)

마. 엡섬 & 이웰 중고등학교(Epsom & Ewell High School)

- 방문 목적: 우수교육기관 방문
- 참가자 및 행사 내용

직	성명	행사내용	비고
행정실장		학교 소개 및 시설 견학	

- 세부 일정 : 2015. 1. 16.(금) 09:00~10:30
- 학교 소개 자료

학교개요	주소	Ruxley Lane, West Ewell, Epsom, Surrey, KT19 9JW
	홈페이지	http://www.epsomandewellhighschool.com/
	○ 1989 년 창립/ 교장 : Alex Russell	
주요연수 콘텐츠	모든 부문에서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육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이트웨이(Home Access)를 통해 가정에서도 학교수업을 간접 경험 ○ 학생들은 수업과 관련된 온라인 자료에 접근할 수 있음. ○ 학생과 교사에게 이메일 계정을 부여하여 교육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 통신이 가능함. ○ 스포츠 교육을 통해 골격 근육, 심장혈관, 호흡기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학습함.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l : 44-20 8974 0400 ○ Fax : 44-20 8974 0401 ○ e-mail : info@eehs.surrey.sch.uk 	

○ 위치 : Ruxley Lane, West Ewell, Epsom, Surrey, KT19 9JW(런던 남서쪽)

1) 학교의 특징

- 1995년 개교. Ruxley Lane, Epsom, Surrey, England에 소재한 중등학교임. 학생 수 900여명이며 11세부터 18세까지의 학생 교육. 엡숨 앤드 이웰 자치구에 속하며, 런던 외곽에 위치.
- 2008년 비판적인 Ofsted 보고서에 따라 '특별 측정'에 포함됨. 2010년에 재 검사시 Ofsted에 따르면 “ '특별 측정'에 포함된 데서 벗어나 '두드러진 점수를 받아 좋은' 상태가 되었다”고 평가될 만큼 긍정적 결과 획득. 2010년 9월 a specialist Language College로 지정됨.(특별측정은 교육감독기관인 Ofsted and Estyn에 의해,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학교들에 적용된 제도임. 이 측정은 학교가 용인가능한 교육수준을 공급하는 데 실패했거나 향상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 능력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될 때 시행됨.)
- 2011년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전환됨. Surrey주 기반의, Jubilee High School, Matthew Arnold School, Pyrcroft Grange Primary School, Sayes Court Primary School and Sythwood Primary School 등을 포함하는 여러 교육기관 트러스트인 Bourne Education Trust의 부분이 됨. 엡숨 앤드 이웰 고등학교는 이 트러스트의 학교들을 선도하게 됨.
- 학교의 시설 및 환경 특징
 - 학교는 외부인 출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안시설을 갖추고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음.
 - 교사건물과 잔디구장, 체육관 등 시설이 전체적으로 잘 구비되어 있으며 관리상태가 청결하고 밝게 디자인 되어 있음.
 - 체육관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교실마다 바로 옆 공간에 컴퓨터 정보실을 갖추고 수업에 필요한 경우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음.
 - 학교의 환경 구성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학습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습활동과 연관된 학생 사진을 많이 부착하여 두었으며, 학년별 학생 스타를 선정하여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음.
 - 각 분야별 교실에는 교사의 입장에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는 각 교과 의 핵심 개념과 관계된 설명 자료 등을 게시하고 있음. 또한 각종 평가 시험에 대한 안내, 관련된 활동 소개, 평가 시험의 결과 및 목표 도달도를 보여주는 게시물을 부착하였음.
- 학교 관리 등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활동보조인이 15명이 있어 학생의 수업 등 교내의 여러 활동을 보조하고 있음.
- 여러 국가에서 온 교사들의 연수 진행, 일정 기간 초과하는 교환 학생 등의 경비를 통하여 학교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연수성적이 좋은 교사들의 경우 학교에서 채용하기도 함.
- 교사들의 수업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과 각 교과부장들이 수시로 교실을 순회, 점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견되거나 학부모와 학생들의 항의가 있으면 고용관계에 반영됨.
- 학교의 교육목표와 교육계획 수립 등에 있어서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의보다는 교장의 가치관과 지휘, 감독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2) 성과 및 시사점

- 엠솜 앤드 이웰 고교는 학업성취도 향상이라는 교육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학교의 환경 구성, 교사 관리, 재원 투자 등이 일사분란하게 조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애설리 초등학교의 환경계시관이 학생들의 학습결과물 전시일 뿐 아니라 학습 결과의 내면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이라면 엠솜 앤드 이웰 고교의 환경계시관은 학교에서 설정한 교육목표와 관련된 학교와 교사의 노력의 산물을 보여주기 위해 설계됨.
- 교원 연수 프로그램, 교환 학생 등을 통한 수익 창출은 학교를 하나의 기업과 같은 경영 모델로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줌.
- 전체적으로 보아 엠솜 앤드 이웰 고등학교는 학력을 중심으로, 효율과 성과 거양을 위해 교육 활동을 펼치는 학교로 보이며, 이는 학교장의 학교 경영관과 카리스마에 기대는 바가 크다고 판단됨.
- 일반학교임에도 스페인어 등 여러 나라의 외국어 교육을 위해 교사 채용, 교실과 정보화 지원, 성과 관리 등을 펼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음. EU의 출범, 세계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외국어 교육은 영국뿐 아니라 유럽 각국의 교육에 있어서 점점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고 여겨짐. 앞서 방문한 에밀리 뒤 샤틀레 고교의 제3외국어 확대 정책에서 이미 확인됨.
- 휴게실 등 학생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특수학생 활동보조인 배치 등을 볼 때 학생 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됨.

3) 주요 활동 사진



☞ 엠솜 앤드 이웰 고교 안내판



☞ 트러스트 소속 이웃학교 관리를 위해 출장 나가는 학교장



☞ 시험장으로 탈바꿈한 강당 모습.



☞ 개인별 성적 공개: 전 과목 목표달성, 한 과목 목표미달 등



☞ 과목-학년별 학습 스타 선정 게시판.



☞ 외국어 교육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



☞ 체육수업실- 학력측정시험안내와 성적향상 독려 게시물.



☞ 도서관내 정보 검색실 모든 교과교실에 컴퓨터실이 딸려있다.

[사진12] 엠솜 앤드 이웰 고교 방문

IV 주요 성과 및 시사점

1. 네덜란드

가. 흐로닝엔 대학교(Groningen University) 방문

1) 초임교사 연수

- 네덜란드는 사범계 대학을 통하지 않고 일반대학 졸업자들이 2년간의 대학원 교육학 석사과정을 거쳐 교단에 입직함. 따라서 초임교사들은 입직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직자 및 학교간 이직자가 많이 발생하여 사회 문제화 됨.
- 네덜란드는 입직후 교육기관에서 개인에게 부과하는 연수는 없으며, 수업의 질 관리를 포함하여 현직 적응 등 제반 문제가 전적으로 교사에게 책임이 있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흐로닝엔 대학교의 초임교사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함.
- 네덜란드의 초임교사 지원 프로그램은 1년 과정인데, 한 학기 동안의 대학원 수강, 한 학기 동안의 현장 지원으로 구성됨. 특히 현장 지원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전문가와 초임교사간 멘토-멘티 관계를 설정하여 운영하며, 초임교사의 교직 적응도 향상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수업전문성 제고에 초점을 둠.
- 한국의 초임교사들은 입직 초기 수업전문성뿐 아니라 교무행정, 일반행정 등의 업무와 관련된 곤란도를 많이 겪고 있음. 수업전문성 관련하여 한국의 초임교사들은 입직 추수연수, 직무연수, 수업공개, 수업연구대회 등을 통하여 수업전문성을 심화하고 있으며, 최근 도입된 수석교사를 포함한 선배교사들과의 멘토-멘티 관계를 활용하기도 함.
- 한국 초임교사들이 가지는 입직 초기 적응도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으나, 이들이 모두 체계적으로 조직되고 관리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초임교사들의 교직 가치관 정립, 교직 적응도 제고, 수업전문성 등 능력 신장의 차원에서 (기존의 제도와 방법을 재구조화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초임교사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 추진할 필요성을 확인함.

2) 교사 전문성 신장 및 수업행동 분석

가) 교사 전문성 신장

- 네덜란드는 교육청이나 학교측의 강제적인 연수 부과 등 교사의 질 관리를 위한 노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교사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전

문성 향상을 기대함. 다만 교사의 재고용 등이 학교장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이 존재함.

- 반면, 한국의 경우는 교육당국의 노력과 투자(교원 연수 및 연찬 부과)와 더불어 교사 개인의 연찬(자율연수, 대학원 진학 등)이 병행되고 있음. 최근 교원평가, 학교평가 등의 제도와 맞물려 각종 연수 활동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됨.
- 향후 한국은 좀 더 교사의 자발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자기 연찬활동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하고 유도할 것인지 정책적 방안 강구가 필요함.

나) 수업행동분석 연구

- 호로닝엔 대학교의 수업행동분석에 활용된 체크리스트는 제한적으로 도입,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계량적인 체크리스트, 그것도 수업상황에서 나타난 행동만을 관찰하여 모든 수업을 획일적으로 평가하거나 더 나은 방향의 개선방안을 찾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호로닝엔 대학교 수업행동분석의 주요수단인 체크리스트는 교사와 학생의 관찰 가능한 행동만을 계량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수업기술을 향상하기 위한 한 도구일 수 있으나, 일련의 교육 과정 속에서 유리된 한 시간 수업의 일면적 상황을 과장되게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 한국의 교단에서 수업 분석을 위해 활용되는 기존 도구들에 대한 보완적 차원의 도구로서 교사와 학생의 행동을 분석하는 유용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제한적인 범위에서 자발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임.

나. 베르크만 고등학교(Werkman College)

- 학생 성적 평가의 결과에 대한 네덜란드의 학교와 학부모의 반응이 상당히 시사적임. 대부분 결과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하며, 물의가 일어나지 않음. 반면 한국 사회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 등을 통한 학교서열화와 학부모의 격렬한 반응,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함. 이는 정부의 정책이 수용되는 사회적 조건과 문화적 풍토의 상이함에서 비롯된 것이나, 한국사회의 반성적 성찰이 필요한 부분임.
- 학교가 지역 공동체의 체육시설을 공유하여 체육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예산의 절감만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분야임.

- 수업과 연찬에 있어서 전적인 교사 자율성 부여는 한국의 교육행정체제와 매우 상이함. 세밀하게 규정된 국가교육과정, 교사의 근무체제, 의무 연수 부과 등 교사의 자율성이 부족한 한국과 비교해 볼 때 향후 교원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데 있어 참고하여야 함.

2. 독일

가. 베를린 주 교육부

- 베를린 주 교육부 방문을 통하여 양국간 교육체제의 상이, 공동의 관심사, 정책 현안 등에 대하여 토론하고 이해를 심화함.
- 독일은 교육에 관한 한 주정부가 전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연방 정부 차원의 교육 정책 수립과 집행, 통일된 기준의 부과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반면 한국은 중앙집권적 교육행정 체제에서 지방자치 영역을 어떻게 규정하고 확대해 나갈 것인가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음.
- 학교의 책무성 관리 시스템 및 자율성 보장과 관련된 행정체제는 양국의 사회문화적 배경, 역사적 맥락이 매우 상이하어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움.
- 독일은 직업교육과 인문 진학교육 조기 분리에 반발하여 전인교육,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을 위하여 공동체학교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한국은 입시 위주, 성적 위주의 기존 공교육에 대한 반발로 대안학교와 공교육 혁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독일의 공동체학교의 철학과 가치, 운영방법 등은 한국의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책 수립에 있어 참고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됨.
- 학부모, 교원 등의 불만과 문제를 파악하고, 처리하는 소통담당관 직제는 향후 한국 교육과 행정이 추구해야 할 거버넌스 확대와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항임.

나. 발도프르 숲레 크로이즈 (Freie Waldorfschule Berlin-Kreuz)

- 하나의 교육철학에 기초한 초중고 통합학교가 공교육 체제 내에 존재하며, 정부의 동등한 지원으로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 교육의 획일성 극복과 공교육 강화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볼만 함.
- 학교 건물이 독립적으로 건축되어 있으며 유기적인 연결을 피하여 설계된 점은 매우 좋았음. 노작교육, 예술교육 등을 위한 공간과 기구의 확보도 눈여겨 볼만한

부분임.

- 채광을 고려한 식당 건축, 접이식 이동용 책상 등 교실 공간 활용을 고려한 기구, 옷걸이 등 학생 편의적인 배려 등은 한국의 학교에도 적극적 도입을 고려하여야 함.

3. 프랑스

가. 꼬레테이 교육청 교육감 면담

- 교육감 선출 및 선임, 학력 제고 정책, 샤를리 에브도 테러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상호 대화를 기반으로 양국의 교육체제와 현안을 비교 이해하게 됨.
- 프랑스의 교육당국이 시행하는 학생 수용 정책과 각 학교의 교육적 출발점을 중시하는 정책 등을 통해 프랑스가 추구하는 평등교육의 실재를 파악함.
- 고교내의 한국 아틀리에 운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초중고대학교 연계 한국 교육교류 확대, 교사파견 등 꼬레테이 교육청이 추진하려는 교육 교류 계획과 구상을 확인함.
- 현재 추진중인 청주외국어고등학교-플로라 트리스탕 고등학교, 한국호텔관광고-에밀리 뒤 샤텔레 고등학교간 자매결연 지원, 꼬레테이교육청의 한국 교사파견 지원, 꼬레테이교육청-한국교원대학교간 교류 지원 등 상호 교육교류 확대에 따른 상호 지원 및 협력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 방안은 추후 협의하기로 함.

나. 플로라 트리스탕 고등학교

- 한국 아틀리에, 한국어 교육, 대학진학과의 연계 등 플로라 트리스탕 고등학교에서 진행 중인 한국어 교육 현황과 한국어 교육 확대 추진 의사를 파악함.
- 청주외국어고등학교-플로라 트리스탕 고등학교간 자매결연 체결 지원을 포함한 충청북도교육청-꼬레테이교육청간 교육교류 확대 지원, 협력 재확인.
- 교육청간 교류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탐색 및 협의 과정을 진행함.

다. 에밀리 뒤 샤텔레 고등학교(Lyce Polyvalent Emilie Du Chatelet)

- 에밀리 뒤 샤텔레 고교의 교육 개요, 시설, 호텔 및 조리 관련 학과의 실제 운영 형태, 최근 발생한 샤를리 에브도 테러 관련 교육 등 전반적 교육 체제와 현황을

파악함.

- 호텔학과, 조리학과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직무교육, 실습을 위한 학교의 공간 배치 등을 체험적으로 관찰함.
- 끄레테이 교육청 국제교류협력 담당관을 통해 끄레테이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과의 교육 교류 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양국 교육청간 상호 협력과 지원 의사를 재확인함.
- 초중고대학교 연계 한국 및 한국어 교육 기반 구축, 고교간 자매결연 추진, 한국 아틀리에 및 한국어교육과정 운영, 교사 파견, 한국교육원대학교와 교류 추진 등 끄레테이교육청은 한국과의 교육교류 확대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충청북도교육청은 청주외국어고등학교-플로라 트리스탕 고등학교, 한국 호텔관광고등학교- 에밀리 뒤 샬레 고등학교간 자매결연 지원, 끄레테이교육청의 교사 파견시 행정 지원, 한국내 프랑수어교육 확대방안 탐색 등 포괄적인 협의와 협력 의사를 전달함.
- 충청북도교육청-끄레테이교육청간 상호 교육교류와 협력을 위한 MOU 체결 추진을 협의하고, 한국교육원을 통한 초안 교류 등 사전 진행 절차에 대해 합의함.

4. 영국

가. 킹스턴대학교(Kingston University)

1) 업무 협약서 체결

- 충북교육청과 킹스턴 대학간의 3개 협약 원칙과 4개 부문의 협력 분야를 합의하고 3년간 유효한 협약서 체결.
- 3개 협약 원칙 :
 -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연수, 연구, 자문, 프로그램 개발, 교사 해외연수, 프로그램 평가 등의 업무에 대하여 협력 및 합작.
 - 협력 조항 일체는 양 기관의 특성과 구성, 가용자원 및 기관내 기획과정 존중.
 - 협력활동에 책임을 이행하여 가시적 성과를 내기로 합의.
- 4개 협력 분야 :
 - 교사 연수 기획
 - 공동 연구
 - 공동 직원 개발 프로그램

- 자문 공유

2) 영어 연수자 일동 격려

- 단장 외 18명의 현직교사 영어 어학 연수자 격려.
- 강의, 과제, 연수 내용 등 어학연수와 관련된 전반적 상황 보고 청취.
- 연수생들의 연수 만족도와 애로 사항 파악 및 관련된 건의 청취.
- 킹스톤대학교 어학연수를 포함한 향후 어학연수 발전 방안 토론.

나. 애셜리 초등학교(Ashley C of E Primary School)

- 애셜리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탐색, 조사, 질문 등으로 번역되는 Inquiry 중심으로 구성됨. 따라서 아동에게 호기심을 유발하고, 관련된 탐색과 활동을 촉진하며, 수업이 구체적인 프로젝트 학습으로 연결됨. 교육과정 재구성을 시도할 때 이러한 Inquiry 중심의 교육과정도 시도해볼 만함.
- 22개로 구성된 가치 덕목을 중심으로 2년 주기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매월 하나의 가치와 관련된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나라 도덕(가치관) 교육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데 있어 시사적임. 특정 교실과 교과에 한정된 도덕(가치관) 교육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교육으로 확대하고 활동 중심으로 가치교육을 한다는 점은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판단됨.
- 세계시민으로서 지구온난화 등 임박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환경 교육의 수범을 보이고 있는 애셜리 초등학교의 사례는 초록 학교 공약 등을 포함한 도교육청의 환경교육 강화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임.
- 애셜리 초등학교의 거의 모든 수업은 활동중심의 프로젝트로 이루어짐. 따라서 아동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연관 주제를 탐색하며, 적극적으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게 됨. 기존의 지식 전달형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 배움 중심의 수업을 혁신해 나가기 위해 프로젝트 수업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 애셜리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관공서, 시민단체 등 지역의 인적 자원의 교육 참여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제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교육을 펼쳐나가는 것은 향후 혁신학교가 추구할 마을공동체교육, 지역화교육 등과 관련하여 참고할 사례가 될 것임.

다. 엡솜 앤드 이웰 고등학교(Epsom & Ewell High School)

- 앵섬 앤드 이웰 고교는 학업성취도 향상이라는 교육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학교의 환경 구성, 교사 관리, 재원 투자 등이 일사분란하게 조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애설리 초등학교의 환경게시판이 학생들의 학습결과물 전시일 뿐 아니라 학습 결과의 내면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이라면 앵섬 앤드 이웰 고교의 환경게시판은 학교에서 설정한 교육목표와 관련된 학교와 교사의 노력의 산물을 보여주기 위해 설계됨.
- 교원 연수 프로그램, 교환 학생 등을 통한 수익 창출은 학교를 하나의 기업과 같은 경영 모델로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줌.
- 전체적으로 보아 앵섬 앤드 이웰 고등학교는 학력을 중심으로, 효율과 성과 거양을 위해 교육 활동을 펼치는 학교로 보이며, 이는 학교장의 학교 경영관과 카리스마에 기대는 바가 크다고 판단됨.
- 일반학교임에도 스페인어 등 여러 나라의 외국어 교육을 위해 교사 채용, 교실과 정보화 지원 등 적극적 투자와 성과 관리를 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음. EU의 출범, 세계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외국어 교육은 영국뿐 아니라 유럽 각국의 교육에 있어서 점점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고 여겨짐.
- 휴게실 등 학생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특수학생 활동보조인 배치 등을 볼 때 학생 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됨.

※붙임 1. 베르크만 고등학교(Werkman College) 대화록

○ 일시 : 2014. 1. 9. 11시~13시

○ 장소 : 베르크만 고교내 교실

방문단 : 아까 목공 실습실 같은 데를 방문했다. 아이들이 스티로폼으로 배를 만들고 있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나?

교장 : 안전한 배 만들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다. 배가 어떠한 형태의 구조를 가져야 안전한지를 궁리해보고 모형을 만들어 실험을 해보는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방문단 : 음악실 방문이 인상적이었다. 아마도 학생들이 작곡한 곡을 연습하여 밴드 공연을 하는 수업 같았다. 방문단이 함께 박수를 치고 격려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교장 : (웃음) 그 학생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이다. 음악교사의 말에 따르면, 사실 더 잘 하는 아이들이 있었다고 한다.

방문단 : 이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의 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교장 : 정부차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정보 공개한다.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진학시킨다. 뚜렷하게 학생들이 감소된 바 없고,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 교육의 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교장으로서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 교사들이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교교육의 질을 관리한 결과로 학업성취도 평가로 나타난다고 판단한다.

방문단 : 시험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학교가 서열화 되고, 학부모나 시민이 학교에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는 등 문제가 없는가?

교장 : 학교의 순위가 공개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 학부모들은 학생의 장래를 고려하고 학생의 성적 수준에 맞춰 진학을 시키는 편이다. 학교 성적 순위가 더 나은 학교로 진학시키려거나 학교를 비난하는 등의 맹렬한 관심은 거의 없는 편이다.

방문단 : 교사들이 더 나은 수업을 하도록 교육청이나 학교가 기울이는 노력은 무엇인가?

교장 : 수업을 잘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다. 가르칠 교재 준비, 수업 준비 등을 위하여 자기에 맡겨진 수업만 마치면 교사들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교사들이 수업을 위해 필요한 물품 구입이나 기타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교장을 비롯한 스태프의 몫이다.

방문단 : 사실상 조기 퇴근을 하는 것이 아닌가?

교장 : (웃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수업을 잘 하는 것은 교사의 책임이다. 학부모의 항의나 학생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 고용에 문제가 따를 것이다. 네덜란드 교사의 채용은 학교장 권한이다.

방문단 : 학교에 운동장이 없다. 체육활동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부교장 : 지역의 체육시설을 활용한다. 별도의 운동장이 없다고 해서 큰 불편은 없다. 수영장 등 지역내 체육시설은 학생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방문단 : 적은 스태프로 학교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데 힘들지 않는가?

교장 : 사실 힘들다. 사람채용, 예산 집행, 시설 관리 등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

방문단 : 교무실이랄까 교사들이 모이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어 보인다.

부교장 : 별도의 교무실은 없다. 우편함을 설치하여 필요한 연락을 취한다. 교사들은 교실과 실습실 등에서 주요한 업무를 처리한다. 그리고 수업이 없는 한 언제든지 학교 밖으로 나갈 수 있다.

※붙임 2. 베를린 주 교육부 대화록

○ 일시 : 2014. 1. 12. 9시~11시

○ 장소 : 베를린 주 교육부 청사내 회의실

- 소통담당관 린O, 학교행정담당 쉐O 영접(린네 주요 경력 : 20년 동안 물리수학교사. 바이언 출생. 페루 리O 교사. 멕시코 교장. 현재 소통담당으로 일하고 있음. 학부모와 교사 등 학교현장 불만 수렴하여 교육부장관에 전달. 문제매니지먼트. 현재 학부모.)

- 인사 및 상호 소개

- 소통담당관 환영사 : 많은 한국의 인사들이 방문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도 나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학교의 모습은 비슷할 수 있다.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 소통담당관의 독일 학교 체제 개관 소개

○ 독일교육의 가장 큰 문제? 한국교육에 대해 아는 점?

- 독일 교육은 주정부간 차이가 많고 통일 시스템이 없어 문제이다. 교과서, 교육내

용 등이 차이가 많고 부별 A 학점도 기준이 다르다. 또한 학교별도 행정운영 체제도 다르다. 16개주가 각각 교육법을 가지고 있다. 고치기도 어렵고 한 주만 고치면 의미가 없다.

- 베를린 주 학생수는 29만여 명이다. 8만여 명이 직업훈련을 받고 있고, 사립학교에는 3만여 명이 다니고 있다. 사립학교에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다. 학생수 뒤의 학부모, 조부모를 생각하면 100만 이상으로 늘어난다. 교육문제를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베를린주의 교사는 계약직을 포함해서 26000여 명이며, 교사 1인당 학생 12명이 안 된다. 독일 전체에서 가장 좋은 편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교사 노령화가 문제이다. 저연령의 학생들과 문화적, 세대적 차이로 인해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다문화 가정에서 독일어 교육을 하지 않아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장벽 동쪽 지역의 경우 학교폭력, 방치아동, 언어불통 학생 많아 인력과 경비가 소요되고 있다.
- 독일교육이 일찍부터 인문과정과 직업과정으로 나누어짐을 알고 있을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몇 살부터 각 과정으로 학생을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분류에 반발하여 고등학교 단계까지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동체 학교도 늘어나는 추세다.
- 한국의 12년간 교육과정을 알고 있다. 아시아의 교육 문제는 똑같다. 인문계열 대학진학 압박이 문제라고 본다. 다른 길이 없는 것이 문제다. 생각이 달라서 그럴 것이다. 독일의 경우 10학년 정도 되면 자기가 진로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60퍼센트가 진학하고 40%가 직업과정을 택한다. 아시아는 95% 이상이 진학한다. 독일은 강력한 수공업 전통이 있어 인문계 진학을 중시하지 않는다. 부모도 마찬가지다. 엔지니어 마이스터 될 수 있고, 필요하면 다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한길만 가도록 하지 않는 것이 독일의 장점일 것이다.

○ 우리나라는 직업 탐색과 진로설계를 위한 자유학기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그런 시기를 운영하는지?

- 독일에는 그런 학기가 없다. 대학진학을 전제로 한 인문교육과정을 택할 것이냐,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택할 것이냐는 교사의 권고를 바탕으로 빠르면 초등 4학년부부터 나뉜다. 이러한 조기 구분에 반발하여 공동체학교(게마인샤프트)가 늘어났다. 공동체학교는 한 학교에서 13년 과정을 통합 운영한다. 김나지움 및 직업교육으로 나아가는 학교(교사)측의 진로 권고를 받아들일지 여부 선택은 학부모가 한다. 김나지움 10학년 시기 1년 동안 진로 변경에 대해 학교(교사) 측

의 권고가 추가로 있다. 이때는 학부모의 선택권이 없다.

○ 한국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설계를 위해 진학상담 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 독일은 진로설계를 위한 특별교사는 없다. 모든 학생 지도 교사들이 모여 한 학생의 진로에 대해 평가한다. 초등도 과목시스템이다. 초등 초기에는 담임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여러 과목을 담당하나 전 과목을 가르치지 않는다. 공동체학교는 6학년까지 한 교사가 모든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
- 기본적으로 모든 교사는 2과목씩 가르친다. 교사양성대학에서는 무조건 2과목을 전공한다. 초등초기에는 한 교사가 4과목까지 교수 가능하다.(한국의 초등시스템 설명. 교대와 학교. 전 과목 가르칠 자격과 한 과목 심화 교육.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전 과목 가르치나 영어, 음악 등 한 과목만 전담할 수도 있음.)
- 독일은 과거 초등양성기관 따로 있었으나 요즘은 대학 나와서 원하면 초등교사가 될 수도 있다. 더 어린 단계의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초등교육은 중등단계보다 중요하며 임금도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유치원부터 라는 말이 있으나 유치원과 학교는 다르다. (한국의 유치원은 보육중심이라는 시각이 있으나 유아학교로서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인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두뇌 발달 시기를 고려할 때 유치원에 더 많이 투자하고 의미 있는 교육시켜야 함)

○ 베를린 주의 교육 중점 정책과 학교에 대한 지원책은?

- 교육재정 확충과 교사교육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시 한지 얼마 안된 정책으로 종일학교, 방과 후 돌봄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을 위해 재정이 뒤따라야 한다. 학교에 관한 통일된 법도 제정이 필요하다. 법안을 제출하여 학교가 지켜야 할 규정 등을 정비하려고 한다.
- 독일의 교육 장관은 선출되며, 정당 소속이 각기 다르다. 따라서 중점을 두는 교육방향도 조금씩 다르다.
- 학교건물, 책상, 청소, 스포츠장 등의 지원은 각 지자체에서 한다. 따라서 학교에 대한 지원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다. 모스크바 출신 교장은 학교 도색까지 신경 써야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국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분리하고 있음. 예산은 중앙정부가 90%, 지방정부가 10% 부담. 한국의 교육감은 정치 중립 때문에 정당 참여가 불가능함.)

○ 독일의 학교 책무성 관리 시스템은?

- 없다. 돈을 어떻게 썼냐 의미 있게 썼냐는 것은 주정부에서 알아서 한다. 독일의

통일시스템은 없다. 주별로 단절되어 있다. 주정부내에서는 강력한 시스템이 있다. 다만 학교회계 계산 센터가 독립적으로 있어 전국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상급학교 진학단계별로 주내에는 일제식 시험이 있다. 베를린 주내에도 통일된 형식의 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 통일된 시험으로 인한 학교 서열화, 학교의 자율성 침해 여지는?

- 독일의 기본법에 독일 모든 지역, 개인을 막론하고 비슷한 것을 관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비슷한 교육, 교사 봉급 등 규정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을 원한다.

○ 교육의 분위기랄까, 교사 만족도, 사제간 관계 등은?

- 옛날은 달랐다. 분위기가 달라졌다. 부모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다.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과 직업교육 두 가지 진로가 첨예하게 되었다. 부모가 학생을 데리고 승마, 발레 등 교육을 시키는 따위의 극성이 심해졌다. 또 어떤 부모는 아이를 깨워서 학교에 보내지도 않는 등 극단적인 현상을 보인다. 50년 전 학부모는 100% 교육을 학교에 맡겼다. 요즘은 학부모가 잘 알게 돼서 불만이 많아진 것 같다. 어느 나라가 낫다, 어느 지역이 더 좋다는 말은 믿지 마라.
- 교사는 당연히 만족, 불만족 다 있다. 베를린 교사 평균연령 56세이다. 인터넷 등 아이들 문화가 교사들의 성장 문화와 너무 달라 이해를 못한다. 행복할 리 있겠냐? 그리고 여교사가 너무 많은 게 문제다. 통일 전 동독은 98%가 여교사였다. 아들이 있는데, 드디어 체육 남교사가 왔다고 하더라. 교사를 계속 하려면 67세까지 할 수 있다.
- 교육에 관한 한 나는 보수적이다. 다른 보통의 학생과 구별되는 재주 있는 학생이 분명 있다. 재주 있는 학생을 발견하는 것이 교사의 할 일이다. 진보정책은 똑같이 키우려는데, 자신은 다르다.(쉐퍼는 진보성향. 린네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음.)

○ 공동체학교의 생긴 이유?

- 나는 교육에 있어서 보수주의자다. 아이큐 분포곡선이 있다. 학업성적도 다 다르다. 저런 아이들을 모두 대학가라고 하느냐. 이점에서 나는 보수적이다. 잘하는 아이들을 키우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공동체학교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 교육변화를 위해 만들어진 발도르프학교에 대한 행정당국의 시각은?

- 발도르프 술레에선 남자한테도 뜨개질 배울래 라고 묻는다. 실제로 학교에 가서 뜨개질 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 가서 이르지 마라.(웃음)

- 웨퍼: 나도 그런 것은 반대다. 발도르프 졸업자중 15% 생활불능자라는 말이 있다. 너무 자유롭게 길러서 그런 것 같다.(일반학교 졸업자 중에서도 생활불능자라고 할 사람들은 많이 나온다.)

○ 교사 연수 시스템은?

-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많이 하나 어디까지나 자발적 참여이다. 강제적으로 실행할 생각은 없다. 어쨌든 모든 학교가 다 의미가 있다. 발도르프 슐레 방문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 선물증정

○ 기념 촬영

※붙임 3. 발도르프 슐레 크로이즈 (Freie Waldorfschule Berlin-Kreuz) 시찰 기록

○ 일시 : 2014. 1. 12. 13시~15시

○ 장소 : 크로이즈 발도르프 학교 구내

- 발도르프 학교는 베를린 시내에만 10여개 정도 존재하며, 발도르프 학교 연맹에 가입되어 있다.

- 발도르프 학교는 공동체학교(게마인 샤프트 학교)로 불리며, 학교의 명칭은 발도르프 학교 + 지역명으로 부여되어 있다.

- 빠르게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나누어지는 인문교육과정과 직업교육과정의 분리교육 대신에 공동체학교인 발도르프 슐레는 12학년 초중고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현지 가이드의 오인과 잘못된 안내로 발도르프 슐레 미테에 먼저 들렀다. 사전 약속이 안 된 학교여서 건물 외관만 둘러보고 서둘러 발도르프 슐레 크로이즈를 방문하였다.

- 시간이 지체되어 사전 약속된 학교대표자와의 면담, 학생들의 수업관찰, 시설 순시 등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시 퇴근 예정인 행정실장의 양해를 얻어 다소 급하게 학교를 살펴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나마 짧은 학교 순시 시간도 멀리 한국에서 왔다는 점을 들어 사정사정한 결과였다. 개인의 일정을 내세워

멀리서 온 손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었으나 한편으로는 엄격한 시간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독일인의 모습을 엿본 것 같기도 하였다.

- 방문한 발도르프 슐레 크로이즈는 주변의 숲과, 학교건물동 사이의 넓은 체육 공간 및 쉼터를 갖추고 있다.
- 행정실장의 안내로 학교 순시함. 학교 건물은 초중고 급별, 기능별로 따로 있었으나 건물간 통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교실 공간은 한국의 교실만큼 넓은 편은 아니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책상이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 교실내 활동 공간 확보가 용이하다.
- 또한 겨울 점퍼 옷걸이 공간을 확보하거나 의자를 뒤집지 않고 바로 책상 위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 편의적인 배려가 눈에 띈다.
- 아동의 수는 학년별로 약간씩 차이가 난다. 초등학교는 13명 안팎, 중학교는 15명 안팎으로 짐작된다.
- 감성교육을 중시하는 발도르프 교육을 보여주듯 음악실, 움직임교육실(오이리트미 교실), 노작교실 등이 기구와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음악실에는 고전 악기와 전자 오르간 등 현대 악기가 골고루 갖추어져 있다. 움직임교육실에는 칠판에 플로어 패턴이 그려져 있고 두 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움직임 수업을 하고 있다. 노작교실에는 다양한 공구와 실습대, 목재 실습재료들이 가득 차 있어 탄성을 자아냈다.
- 교실에 들어가 음악수업을 관찰하고자 하였으나 실내공간의 협소로 허가받지 못하였다. 기록을 위하여 교실환경을 촬영하는 중에 한 여학생이 '노 포토'를 외쳤다. 미리 안내를 받았지만, 유럽에서는 개인정보와 인권보호 차원에서 아동에 대한 촬영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아동의 사진을 악용한 사례가 있어 학생들 촬영에는 학교측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였다.
- 초등학교 건물에서 중학교 건물 동으로 이동하는 중 한 무리의 남자 아이들을 만났다. 인사를 건내고 나이를 물으니 12살이란다. 잘 생겼다고 칭찬하니, 대뜸 어디서 왔냐고 묻는다. 한국서 왔다고 하니 나라를 금방 떠올리지 못하는 눈치다. 그래서 '강남스타일~'이라며 말춤 흥내를 내니, '아~, 강남스타일~' 그러며 알겠다는 시늉을 한다. 문화의 전파력이 큼을 새삼 느꼈다.

학교 식당은 그리 크지 않으나 천장에 창문을 내어 채광과 시야를 확보하여 넓고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붙임 4.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 이OO 대사 예방 대화록

○ 일시 : 2014. 1. 13. 18:00~19:00

○ 장소 :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 접견실

- 김OO 교육감 : 귀한 시간을 내어주어서 고맙다, 또 프랑스 꼬레테이 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의 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왠지 낯익고 친근한 느낌이 든다.

- 이OO 대사 : 프랑스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일정이 힘들지는 않느냐? 내가 한미 FTA 기획단장으로 근무하여 미디어에 자주 나온 탓에 얼굴이 익숙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대사 :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법대 대학원을 나와 외무고시를 통해 외교관의 길을 걸었다. 프랑스어는 과외를 통해 익혔다. 한국이 프랑스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프랑스어를 공부하여야 된다고 본다.

프랑스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 외교적 분야에서 세계 4~5위를 점하는 국가이며, 이러한 프랑스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프랑스어를 공부해야 한다는 국가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국이며, 외교적 영향력이 큰 나라이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선진국에 속한다. 최근 노벨 문학상, 경제학상도 프랑스인이 수상하였다. 결론적으로 프랑스의 국제적 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교육감 : 과거엔 학교 교육을 포함하여 한국 사회에서는 프랑스는 당연히 배우고 따라야 할 선진국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최근엔 그러한 관심과 노력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 아쉽다.

- 대사 : 프랑스가 여전히 선진국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유럽 최고의 복지 투자를 통하여 출산율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러한 정책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정책조사를 많이 나온다.

현재 한국과 프랑스는 수교 130주년을 앞두고 있으며, 한국은 프랑스로부터 고속철과 원자력 기술을 수입하였다. 프랑스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나라이다. 따라서 프랑스와 프랑스어 교육에 대한 김OO 교육감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프랑스어 교육과 관련하여 현재 프랑스내의 한국어 전공자는 700명 수준이고,

부전공을 포함하면 1700명 정도 된다. 이는 한국내 프랑스 전공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프랑스어 교육에 특히 힘써주기를 바란다.

- 교육감 : 중부권으로 옮겨온 교육부 등의 중앙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교육도시 청주의 위상을 새롭게 되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교육모델을 찾으려 유럽 4개국 순방에 나선 길이다. 아울러 프랑스내의 꼬레테이 교육청과 교육청간 교류, 청주의고와 플로라 트리스탕 고교, 한국호텔관광고와 에밀리 뒤 샤텔레 고등학교와의 교류를 위한 사전협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

과거 제2외국어로서 독일어와 함께 프랑스어 선택 수강이 많았으나, 근래 중국어와 일본어 등 아시아권 언어로 선택이 쏠려 프랑스어 과목이 거의 대부분 폐과가 되어 안타깝다. 프랑스의 교육청 및 학교와의 교류로 프랑스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제고되기를 바란다.

- 대사 : 가장 바람직한 외교는 교육을 통한 외교라고 생각한다. 19세기의 외교어는 프랑스어였고, 지금도 공식외교어이니만치 프랑스어 교육은 방치되어선 안 된다. 옛 프랑스 식민지를 포함하면 50여 개국 약 3억 정도가 프랑스어를 사용한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프랑스어 전공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고등학교때 기본을 공부하면 나중에 프랑스어 공부를 할 때 쉬워지니 일부라도 프랑스어 공부를 위한 기회가 고교 단계때 부여되면 좋겠다.

- 교육감 : 프랑스어 공부를 위한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방안을 탐색해보겠다. 최근 선택이 줄어들어 프랑스어 교사들이 영어로 전과하고 있어 안타깝다. 일부 대학에서 국어교육과와 별도로 한국어교육과가 설치되고 있는데, 퇴임후라도 프랑스어 교사들이 한국어교사로서 활동을 계획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든다.

- 대사 : 충북교육청과 프랑스 교육청의 교육교류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 또 한국교육원장은 각별한 협조와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 교육감 :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환대해 주심에 감사의 뜻을 다 표현하기 어렵다. 교육 교류 등 프랑스내 일정을 성심을 다해 추진하겠다. (이후 기념 촬영)

※붙임 5. 꼬레테이 교육청 교육감 조찬 면담 대화록

○ 일시 : 2014. 1. 14. 08:30~9:40

○ 장소 : 꼬레테이 교육감 관사

○ 관사 영접 및 안내

- 김 교육감 : 반갑다. 맞아주셔서 감사하다. 충북교육청교육감 김OO이다. 열흘 일정으로 유럽 4개국을 순방하고 있으며, 오늘로 7일째다. 방문단 소개를 드리겠다. 백OO 장학관, 오OO 장학사, 그리고 현장 초중등교사들이다.
- 질 교육감 : 환영합니다. 이곳 관저는 80년대부터 사용되어 온 것이다. 공관이다. 주요한 손님을 맞는 곳인데, 멀리 한국에서 오신 여러분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예정된 일정이 잘 진행되어 서로가 만족하는 결과를 맺기를 바란다. 함께 하신 이들을 소개하겠다. 마담 아OO- 수학장학사 교수학습 총괄 기획, 남자 마OO O OO 국제담당 장학사.
한국 교육은 그동안 높은 성과를 보여 왔다. 교육 교류를 통해 서로 배우게 되기를 바란다.
- 김 교육감 : 프랑스의 교육을 배우고 싶다. 꼬레테이 교육청이 앞서가고 실험이 모범적이라고 들었다. 교육감을 비롯한 주요인사의 환대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방문학교 포함하여 교육청간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서로에게 도움 되기를 바란다.
한국교육은 성과 높았으나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공부만 잘하라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한국 교육의 성과는 학업성취도에 초점을 두었다. 학습 흥미도를 포함하여 공부를 재미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 꼬레테이 교육청은 여러 가지 실험을 한다는데, 교육복지와 재미있게 공부하는 것 배우고 싶다.
- 질 교육감 : 최근 파리에 테러가 있었다. 교육계에서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우리 학생들의 미래, 표현의 자유와 우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긴급하게 회의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준비하고 있다.
연전에 한국 방문할 좋은 기회 얻었다. 그런데 충북교육청은 방문하지 못했다. 3명이 한국 방문했다. 한국의 교육체계가 매우 흥미로웠다. 짧은 방문으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었다.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매우 높다. 실제 프랑스보다 더 높다. 교육감이 말한 한국교육 고민에도 관심이 있다.
- 김 교육감 : 꼬레테이 교육청에 대해 소개해 달라.
- 질 교육감 : 꼬레테이는 수도권에 속한다. 프랑스에서 교육청 규모로 두 번째 크다. 빠리는 규모로서는 작다. 그러나 빠리에는 대학이 많다. 꼬레테이는 초중등학교가 많다. 꼬레테이는 외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학생의 출신이나 성향, 성격이 다양하다. 3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도 있고, 외국 이민자 가정도 다수다. 이들로 인한 사회문제도 많다. 나머지 두 부분은 프랑스 중산층이라 볼 수 있다.

- 김 교육감 : 프랑스 학교교육의 현안은 무엇인가?
- 질 교육감 : 프랑스의 교육 시스템은 중앙집권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비슷하다. 현재 교육개혁이 진행 중이다. 2013년 신교육법을 제정하였다. 프랑스내의 교육의 공정성, 평등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잘하는 아이들이 존재하지만, 20-25%는 기본수준에 못 미친다. 불평등을 감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적 지원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계층과 교육이 연결된 것을 끊어내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는 평등국가이니까. 교사연수, 교육과정을 강화할 것이다. 열악한 지구를 우선교육지구로 지정하고, 학생평가에 관여하고자 한다. 이 모두 차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 김 교육감 : 충북교육청의 일반적인 현황을 소개하겠다. 충북교육청은 17개 한국의 교육자치구역 중 하나다. 규모는 작은 편이다. 학생수는 24만 명 수준이다. 교사 15000여 명이다. 초중고만 관할하며, 대학은 제외된다. 비정규직 포함 1만 정도 직원이 있다.

충북교육청이 소재하고 있는 청주는 예부터 교육중심 도시로 알려져 있다. 인구수에 비해 학생, 학교수 많아서였다. 이제는 그런 요소로 교육의 중심이라고 하기 어렵다. 교육감으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육중심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한국교원대학을 비롯 교원양성대학이 많이 있다. 사실 대학은 소관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근의 행정수도에 교육부가 이전해 왔다. 관내 신도시에 교육과정평가원, 교육개발원도 이전했다. 주변이 교육행정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충북교육을 도약시켜 한국의 새로운 중심이 되기 위한 기회요인이 되고 있다.

중간정도의 학생이 많아 학업성취도 면에서 성과가 높은 편이다. 최하위, 최상위는 적은 편이다. 일부 학부모는 지역의 우수인재가 타시도로 유출되어 걱정하고 있다. 우수 학생 챙기기 위한 영재학교 등이 적음을 탓하기도 한다. 나는 프랑스처럼 전체 학생의 교육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교육성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래의 방법, 성적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공부를 좋아해서 저절로 성적이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교육감의 역할이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새로운 중심이 되도록 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랑스 와서 그런 점에 많은 시사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 질 교육감 : 크레테이 교육청은 한국과의 교육교류를 준비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아틀리에를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

다. 두 개 학교다. 고교와 대학교를 연계해서 한국과 교류 할 수 있는 축을 만들려고 한다. 한국학생 방문시 숙소 등 학생 수용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 MOU를 말하자면 학생간, 학교간 교류가 포함될 것이다. 오늘 만나서 MOU 완성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대화가 도움 될 것이다. 우리 교육청은 한국교육원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 당장 교사 1명을 한국에 파견하고자 예정되었다. 파견교사의 활동으로 서로 협력이 쉬워 질 것이다. 파견교사의 귀국후 활동으로 교육교류의 확대를 위한 기초가 탄탄해질 것이다. 크레테이와 충북이 상호 교류해서 교육체계를 서로 비교하면 좋겠다. 교육전반 및 학교운영진 등 학교 체계 비교가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방문 후 토론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크레테이 교육청은 교육이노베이션, 교수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혁신을 중점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혁신될 수 있을까? 전체 학생의 학력을 신장하는 법은? 교육혁신의 중심에 학습 환경과 학생 평가하는 방법의 개선을 놓고 있다.

- 김 교육감 : 플로라 트리스탕 고교와 한국의 청주외고, 에밀리 뒤 샬레 고교와 한국의 호텔관광고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다. 잘 되기를 바라며, 교육청으로서도 적극 협력, 지원하겠다. 크레테이 교육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교류확대와 관련하여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 질 교육감 : 충북 학생들의 대학진학율은?
- 김 교육감 : 70% 넘게 대학 진학하고 있다.
- 질 교육감 : 학력격차가 발생하는 시기는?
- 김 교육감 : 유치원부터.(웃음) 점수를 내지는 않지만 사실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은 성취도로 줄을 세우는 교육경향이 있다. 그 기준은 인지능력 중심이며 사실상 한줄 세우기이다. 초등학교는 비교적 적으나 중학교부터 석차를 낸다. 초등학교부터 부모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중앙정부도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성취도 요구하며 책임을 묻고 있다. 전체적으로 학업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 질 교육감 : 교육부가 실시하는 교육청 평가 결과 사용방법은?
- 김 교육감 :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의 차별을 둔다. 또한 결과를 공개한다. 공개하니 학부모로부터 비교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다.
- 질 교육감 : 프랑스는 성취도결과나 학생성적에 따라 재정지원을 절대 하지 않는다. 학생의 출신 상태, 학생수에 의해 재정을 지원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 김 교육감 : 동의한다. 부모의 경제수준에 의해 학생성적이 연계되어 있다. 양극화 초래 가능성이 있다. 충북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건을 같게 해서 성취도를 높여야 한다고 본다. 복지확충 등은 경제적으로 낮은 지역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보충: 기본적 지원 같게 하고, 보너스, 성과급 개념으로 지원. 충북교육청 예산은 2조 정3도, 성과급은 100억 정도.)

- 질 교육감 : 학업성취결과는 절대평가방식인지? 상대평가방식인지?
- 백 장학관 : 절대방식이다.
- 질 교육감 : 프랑스는 그런 경우라도 상대평가를 한다. 그 학교의 학생 출신계층을 고려한다. 학교서 성취도 올라갈 수 있는지 보고 그것을 평가한다. 진보율을 측정하는 것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모든 수준의 학생을 데리고 있으나, 다른데 특정수준 학생 보내지 않았나, 성적 진보율은 어떤가를 살펴 보고 프랑스내 각 학교의 성적을 비교해 본다.
- 김 교육감 : 학업성취 등에 있어서 학교효과를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
- 질 교육감 : 학교는 학생을 선택하지 않는다. 선발하지 않는다. 공교육에서. 중학교는 행정지역에 따라 배정한다. 고등학생은 국가에서 배정한다. 학생이 혼합적이 되도록 가장 신경 쓴다. 그래서 기숙학교는 없다. 학부모의 선택도 없다.
- 백 장학관 : 충북지역만 말하겠다. 중학교 학생 배정은 학부모와 학생의 희망을 반영하여 교육청에서 배정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인문계고는 평준화지역은 학부모, 학생의 선택과 희망을 반영하여 교육청이 배정하고,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에서 선발한다.
- 김 교육감 : 엘리트교육, 영재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있다. 나는 이것이 한국교육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 질 교육감 : 프랑스에서도 사교육 수요는 있다. 공교육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공부 못하는 학생을 위한 사교육은 많다.
- 김 교육감 : 기숙학교 요구가 많다. 학교 옆집인데도 기숙사 건설을 요구한다. 기숙사에 들어가 공부만 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학부모의 기대는 비슷하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방법이 한국 교육의 발전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는 그런 방법 안 된다고 본다.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가 보여준다. 다른 가치관과 방식을 주장한 후보들이 13명이나 선택을 받았다.
- 질 교육감 : 김 교육감은 대학교수 출신인가?
- 김 교육감 : 나는 평교사 출신이다. 교육위원을 역임했다. 이번 지역 교육감 선거에서 평교사 출신이 많이 당선되었다. 물론 그 중에는 대학교수 출신도 있다. 교육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이 점 프랑스와는 다를 것이다.
- 질 교육감 : 장관의 영에 의해 평가를 개혁하고 있다. 저소득층 지향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수아에 유리한 평가기제였다. 평가기제로 더 나쁘게 하지는 않은지 반성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 김 교육감 : 저학력 학생 없애자는 지향 같으나 당근과 채찍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효과, 비효과 판단에 있어 이견이 있다. 비교 보상 등보다 내적 책임감과 자발성 기반 등 관점 조정 중이다.(부연: 학업성취도평가는 초중고에서 중고로 축소. 기초학력미달 학생 많은 곳에 재정지원. 학력향상중점학교 운영. 원래 취지에 따른 긍정효과와 부작용 공존함.)
- 리O 국장 : 대학에 비진학하는 30%의 진로는?
- 김 교육감 :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주로 해당된다. 취업을 장려하고 있다. 사회적 대우가 열악해서 본인과 부모가 루저로 생각해서 기회가 되면 대학진학하려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 질 교육감 : 남녀 학생의 대학진학 비율은?
- 김 교육감 : 성적에 있어 일반적으로 중학교 수준에서는 여학생이 앞서나 고교에선 남이 높다. 대학가서는 여학생이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취업시에는 여자가 불리한 편이다.
- 질 교육감 : 교육감 중 여자는?
- 김 교육감 : 없다. 작년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주민직선이 장벽으로 작용한다. 여성도 남후보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웃음) 일반적으로 선거문화가 여성에 불리하다.
- 질 교육감 : 프랑스에서는 국가적으로 사회적, 지역적 불평등과 남녀 불평등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김 교육감 : 배울 점이다.
- 윤 대표 : 이번엔 평등의식이 높은 후보가 많이 당선되었다.
- 질 교육감 : 교육감 선출제는 언제부터?
- 김 교육감 : 한국은 일반자치와 특별자치로 분리되어 있다. 세계적 상황을 볼 때 특별한 경우일 수 있다. 1990년부터 간접선거형태의 교육자치가 도입되고, 7년 전부터 주민직선으로 바뀌었다.
- 질 교육감 : 프랑스의 모든 정책은 사회적, 지역적, 성별적 불평등을 지양하기 위해 노력한다. 임명제든 선출제든 성별 비율 할당한다. 비율 어기면 패널티를 부여한다. 총 30명중 10명이 여성 교육감이다. 1명도 없는 한국은 문제가 된다. 교사비율도 남녀 할당이 있다.
- 김 교육감 : 교사 지망 학생 선발에 있어 9대 1 비율로 여성이 많다. 현직 교사도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성별 비율제나 할당제가 없다.(부연 : 교대의 경우 선

발시 성별 비율제 있었으나 사라짐. 장학사, 관리자 선발시는 제도 유지. 70% 못 넘게.)(부연 : 여성 교사 많은 이유- 성적이 높고 수업시연 등에 여성이 유리)

- 리O 국장 : MOU 협의와 다음 일정을 위해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 김 교육감 : 한불수교 130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의미 있는 해이다. 교육도 향후 서로 의미 있는 교류를 기대한다. 끄레테이 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교원대 방문시 충북청도 꼭 방문 해주시길 바란다. 교원대와의 교류에서도 협력하겠다.
- 질 교육감 : 교원대 교류에도 교육청이 관심 주시길 바란다. 향후 서로 도움과 정보 주는 관계를 기대한다.

○ 선물 교환 및 기념촬영

○ 배웅

※붙임 6. 플로라 트리스탕 고등학교(Lycee Flora Tristan) 대 화록

○ 일시 : 2014. 1. 14. 10:30~12:00

○ 장소 : 플로라 트리스탕 고교 회의실

○ 학생 에스코트 - 학교 관리자 영접

- 중앙홀 2층 회의실 협의(끄레테이 교육청 국제협력국장 등과 학교관리자 참석)
- (테이블 세팅, 서빙이 호텔식. 교감이 호텔관광계통의 고교 근무경력)
- 교육감 : 수행단을 소개드린다. 장학관, 장학사와 현장 초중등 교사들이다. 서구의 모범적 교육사례 배우기 위해 유럽 4개국 방문 중이다. 끄레테이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귀교를 방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시설, 시스템 등 앞서가는 모범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 들어와 처음 접하는 센터가 특이하였다.(30년된 건물-당시 혁신적. 현재 리모델링 준비중.) 이곳 디자인이 혁신적이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
- 교장: OO씨 수고해서 협력하게 되었다. 만나게 되어 반갑다. 교육청 관계자와 교직원 소개하겠다.
- 리O: 오면서 차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다문화간 교류를 확대하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상호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오늘 2개교 방문 예정인데, 플로라 트리스탕 고교와 에밀리 뒤 샬레 고교이다. 2킬로 정도 떨어져 있다. 끄레테이 관내가 큰데, 2개교는 중심에 위치해 있다. 끄레테이는

지하철로 파리와 연결되어 있다. 반대쪽 종점에 디즈니랜드가 있다. 또한 해외 기업이 주변에 있다. 방문 예정교 주변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도 있다. 국제 섹션도 있다. 한국학생과 교류하면 숙소를 주변에서 활용 가능하다. 한국학교도 교류 희망하는 것으로 들었다.

한국교류의 시발점으로 우리는 한국대사관과 협력하여 한국 아틀리에를 시작하였다. 그래서 르레테이 교육청에서 교사 한 명을 파견하고자 한다. 그 교사가 한국어와 문화를 배워서 프랑스에 돌아와 교사를 교육할 것이다. 교사 파견 기간은 한 달이 될 수도 일 년이 될 수도 있다.

- 교육감 : 교사가 파견되면 관내 외국어 고등학교에 적을 두는 방법으로 한국 체류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기 추진되던 플로라 트리스탕 고교와 한국외교의 자매결연 체결과 교류 확대도 내실 있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에밀리 뒤 샬레 고교와 한국호텔관광고와의 자매결연도 마찬가지다. 교육청으로서도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리O : 인근의 초등학교 하나도 한국과 교육 교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반고 뿐 아니라 직업계 고교도 교류를 희망한다. 나아가 인근의 국립대학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초중고 대학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관심은 향후 교류의 하나의 축이 될 것이다. 발견하고 교류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대학교도 교육청이 관할)
- 교장 : 한국의 산업 등 발전상 관찰 기회 제공을 포함하여 프랑스 학생에게 유익한 점이 많다.(리O -포스코 방문 경험 있음) 발견이나 방문 등 일시적인 것을 넘어 언어 공부, 문화 학습 등을 위해 초등학교 등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학교에 들어올 아이들이 초중에서 한국어를 접하고 들어오면 좋을 것이다. 초중고 연계 대학과정으로 코스 잡히게 될 것이다.
- 리O: 프랑스 학생 모두가 배우지는 않지만, 한국이 국제사회 미래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은 중요하고 도움이 될 것이다. 프랑스어 역시 국제사회 중요 언어이다. 북아프리카 등 언어사용을 봤을 때 불어 배우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언어 기반 교류가 중요하다. 중고만 아니라, 초중고대 연계 관심 구조를 만들자. 현재 추진중인 중고교류보다 더 진전된 제안이다. 장기 플랜을 계획 하자. 그리고 프랑스 교사도 외부에 나가 어떻게 교육이 이뤄지는 지 배우는 게 중요하다.
- 교육감 : 한불 수교 130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그 당시 한국은 동아시아의 변방 국가이며 은자의 나라였다. 그때부터 프랑스는 예술, 정치 등 선망하는 국가였다. 일본 식민지 36년간 있다가 분단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프랑스가 자유와 평등의 정신으로 지원해서 지금까지 우방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로 경제발전과정 등에서 프랑스유학을 많이 왔다. 고등학교에서 수십 년간 제2외국어로 배웠다. 나중에 유학 올 것이라 예상해서 권장했었다. 경제발전이후로 프랑스 유학은 늘어났으나 고등학교 등에서 프랑스어 교육은 쇠퇴하였다. 이제 유학 오는 학생은 개인적으로 배워서 오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교육교류를 하면서 민간차원의 협력도 확대 되었으면 한다.

- 리O: 언어는 필수적 조건은 아니나 풍부하게 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 교육감 : 충북의 경우 일반고는 프랑스어는 없으나 청주외고에서는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있다. 앞으로 교육교류에 핵심적 역할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청주외고도 프랑스어 교육에 관심 학생을 모으는 것을 기대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직접 교류 기회 없을 것이다.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충북교육청과 청주외고의 행운이다.
- 교장 : 교류하게 되면 아주 좋을 것이다.
- 장학사 : 한국 아틀리에 프로그램을 받아들여서 아주 감동이다. 청주외고와 처음 교류하게 된다. 청주외고를 잠깐 소개하겠다. 한국의 외고는 34개다. 공사립 각 반반이다. 청주외고는 공립으로서는 최초 외고이다. 프랑스어를 포함해서 7개 언어 학과가 있다. 이 학교 강점은 언어를 통한 맞춤형 진학지도로 적재적소 진학을 한다. 교류가 이뤄지면 폭넓은 시야, 진학, 취업 등에 유용한 기회가 될 것이다. 실무진으로서 교육감과 협의해서 양국교류 잘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한국교육원장 : 한국에서 프랑스어를 배우는 학생은?
- 오 장학사 : 한국의 외고에서 1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
- 백 장학관 : 초등 방과후 학교부터 프로그램 개설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프랑스처럼... 그래서 초등부터 시작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본다.
- 한국교육원장: 프랑스 대사관에 붙어 아틀리에가 있다.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번 르앙의 경우 디지털교류, 예술작품 등 교류하다가 한국에서 언어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처음은 문화 이해부터 시작하였다.
- 교육감 : 한국 아틀리에 구축시 협조할 것이다. 필요시 장학관에 연락 바란다.
- 리O: 빠른 시기 안에 프랑스 교사가 한국방문 할 수 있는가? 재정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다. 경비는 프랑스 교육청 부담이다.
- 교육감 : 언제라도 환영이다.
- 리O : 한국의 외국어고등학교에서 배우는 7개국어는 무엇인가?
- 오 장학사 : 영독프중일러 등 7개이다.
- 교장 : 프랑스의 경우도 거의 비슷하다. 다만 라틴어 그리스어 등도 가르친다.

- 교육감 : 청주외고의 경우 일어과에서 일본 교류를 하는데 다른 언어과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프랑스어과도 하면 좋아할 것이다.
- 김명 : 외교 근무 경험이 있다. 학생들이 프랑스 문화에 관심이 높았다. 개별적으로 그룹별 여행 등을 조직하여 떠나더라. 향후 학생들의 프랑스 방문시 학교 등 방문 지원하면 좋을 것이다.
- 교육감 : 청주외고에 프랑스인도 원어민으로 있다. 외교 예산으로 개별 채용하였다.
- 리O : 채용방식은?
- 오 장학사 : 국립국제교육원(교육부 산하)이 있는데, 각 언어별로 채용공고를 내서 자격이 되는 분을 채용한다. 각 언어권에 지부가 있어 현지인, 교사 등을 채용하는 것이다.
- 교장 : 다른 일정 있어 나가야 겠다. 만나서 반갑다. 고맙다.
- 교육감 : 외교 원어민도 자격 있는 분 선발해서 잘 활용하고 있으나 크레테이에서 훌륭한 분 선발해서 보내주면 정말 좋겠다.
- 리O : 끄덕끄덕.
- 교육감 : 공식 파견되면 급료는 크레테이에서 지원하겠으나 거주 편의 제공은 가능할 것이다. 외교 수업 지원 등 활동 영역 보장하면서 한국쪽 교사 활용 방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리O: 숙식?
- 교육감 : 숙소 제공을 말한다. (원어민 예산중 1-2명 활용 가능.) 업무 1순위- 여기서 필요한 업무. 2순위-한불교류 업무 보장하겠다.
- 리O: 처음 시작은 1주 정도. 수업, 교육제도, 환경 등 관찰키 위해 파견하고자 한다. 그것은 향후 교사 교육, 향후 파견을 위한 준비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충북교육청에서 수용?
- 교육청 : 웃음.
- 리O: 액션은 학생을 위한 것이지만, 교사의 관심을 끌어내야 한다. 아틀리에를 통해 관심을 높이고 한국에 보낼 것이다. 충북의 현황과 필요를 보여주면 향후 베이스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방문이 매우 중요하다. 일을 위한 한국방문 기회가 있었는데, 자신보다 끄레테이 교육감과 아미유를 가라고 권해 현재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감이 가기 전에는 잘 될까 의심이 있었는데, 방문후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 교육감 : 이곳 교장, 교감선생님도 그럴 것이다.(리O 교감 웃음)
- 교감: 한국 아틀리에를 1월에 시작하기에는 9-10월에 (이미 타 과목 등) 선택한

경우 많아 선택한 학생수의 제한이 따랐다. 현재는 희망자 중심으로 운영중이다. 내년에는 학기초에 미리 정보 줘서 더 많이 선택하게 할 것이다. 중학교에서도 관심 있는 학생이 이곳으로 올 것으로 본다.

- 리O: 130주년 행사로 한불 연합 요리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 학교와도 관계있고, 교감도 관계있다.
- 교감: 전에 호텔업 관계 교사였다. 보여줌을 통한 교육을 한다. 환영 도움 학생의 단정한 복장도 호텔식을 경험하게 한 것이다. (테이블 세팅- 꽃. 과일 접시. 주스. 커피-과 서빙에서도 호텔식임.) 소수정예로 한국아틀리에 운영해서 학생교육을 하고 향후 대학 진학케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9.3.3 학년별로 정예화 하였다. 당초 희망은 더 있었다. 앞으로 아틀리에 참여 학생이 충북에 틀림없이 방문할 것이다. 오신 것 감사하며 잘 될 것을 기대한다. 앞으로 많은 교류 희망한다.
- 교육감 : 마찬가지로 교육 교류의 확대를 기대한다. 학교를 찾아 올 때 내내 흐리고 어두웠던 날씨가 지금 환해졌다. 미래의 밝은 희망을 나타낸 것이라 생각한다.

○ 선물 증정

○ 기념 촬영

※붙임 7. 에밀리 뒤 샬레 고등학교(Lyce Polyvalent Emilie Du Chatelet) 대화록

○ 일시 : 2014. 1. 12. 12:00~15:00

○ 장소 : 베를린 주 교육부 청사내 회의실

○ 주차안내, 주단 환영, 호텔바 공간에서 환영 리셉션

○ 식사 및 환담

○ 학과와 실습 서빙 학생 소개, 요리대회 준비 조리실 방문, 학교 시설 순방

○ 샬레 에브도 관련 교육 현황

○ MOU 체결 관련 사전 협의

- 리O 국장 : 충북과 비교하면 크레테이의 학생수가 3배이다. 디즈니와 연결 축대로 한국어 교육과 교류 범위를 제한하였다. 그러면 2개 대학교와 초중고가 규모면에서 비슷할 것이다. 전략적으로 짠 것이다. 교사 파견 프로그램의 이름을

줄 베르느로 명명하였다. 이 고등학교는 제 3외국어를 도입하는 데 관심이 있다. 한국어도 포함될 수 있다. 빨리 교사를 파견 하고 싶다. 몇월에 가능한가? 중학교 배치 또는 고등학교 배치?

- 교육감 : 포괄적 MOU를 체결하고 구체적 사항은 추후 협의하자. 청주외고에 아틀리에 비슷한 프로그램 맡아주도록 협의하여 보겠다. 이 학교는 호텔관광쪽의 전문 교육이 눈에 띈다. 한국호텔관광고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향후 점진적인 교류 확대를 기대한다. 줄 베르느 프로그램 실행시 숙소제공 등 편의 제공 용의를 재차 밝힌다. 앞서 말씀하신 다양한 내용은 프랑스 파견 교사를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크레테이 교육청에서 열고자 하는 요리경연대회는 한국의 다른 교육청과 교류 있다 했는데, 타 교육청은 호텔관광고가 없다. 어떻게 대회를 개최하는가? 전문대 연결해서 비슷한 수준의 대학생 추천할 수도 있다.
- 리O 국장 : 타 교육청의 마이스터고의 조리학과 학생과 대회를 열기로 하였다. 대학보다 고교생 프로모션에 더 관심 있다. 무게중심이 고교에 있다. 요리대회 앞으로 계속할 것이다. 교육프로그램 교류도 계속할 예정이다. 한불 수교 130주년에 따른 미디어의 시선 끌기 위해 행사를 추진한다. 창의성, 교육성 등 다 들어간 것 행사를 열 것이다. 미디어는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의 나이보다 주제에 관심이 있다.
- 교육감 : 지금 시점에서 교육감의 확인보다는 단위학교와 상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본다. 교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신중한 검토도 따라야 될 것이다.
- 리O 국장 : 전중후 단계 장기적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그래서 요리 콩쿠르는 교육적이어야 한다. 한불수교 130주년에 맞추면 장기적 프로그램으로 안착하는데 도움될 것이다. MOU 초안 작성해서 한국교육원에 보낼 것이다. 충북교육청이 수정보완해서 보내면 최종 합의과정으로 갈 것이다. MOU 체결하는데 요리경연이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근본적인 목적은 학생에 도움이 되고, 미디어 타면 학생 취업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교육감 : MOU 초안의 점검과 성안, 체결의 과정은 그렇게 하도록 하자. 국제요리 콩쿠르는 한국 학생들도 참여하게 된다면 교육교류에도 긍정적일 뿐 아니라 학생에도 기회가 될 것이다.
- 리O : 잘 성사될 것을 기대한다. 다시 한 번 오신 것 감사드린다. 크레테이 교육감의 관심정도는 관저초대로 아실 수 있을 것이다
- 교육감 : 한국 오면 관저는 없지만 정성껏 대접하겠다.
- 교장 : 저희 고교방문을 환영하며, 저희 학생 실습에 도움을 주심에도 감사드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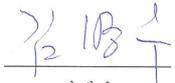
다.(방문단 환영 절차와 식사 등 음식 제공 과정이 호텔 서비스 교육과정의 실
습이 되었다.)

※붙임 8. 충청북도교육청-킹스톤 대학교 업무 협약서

충청북도교육청과 킹스톤대학교 간의
업무협약서

1. 협약자
 - 1.1 대한민국 충청북도지방행정교육기관인 충청북도교육청 (우편번호 361-703, 대한민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번지) (이하 '교육청'이라 함)
 - 1.2 영국 고등교육기관인 킹스톤대학교 (서리주 킹스턴 어폰 템즈 하이스트리트 53-57번지 (이하 '대학'이라 함))
2. 협약 원칙
 - 2.1 교육청과 대학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연수, 연구, 자문, 프로그램 개발, 교사 해외연수, 프로그램 평가 등의 업무에 대하여 협력 및 합작하기로 합의한다.
 - 2.2 협력 조항 일체는 양 기관의 특성과 구성, 가용 자원 및 기관 내 기획 과정을 존중한다.
 - 2.3 양측은 협력 활동에 책임을 이행하여 가시적 성과를 내기로 합의한다.
3. 일반 협력 분야
 - 3.1 교사 연수 기회
 - 3.2 공동 연구
 - 3.3 공동 직원 개발 프로그램
 - 3.4 자문 공유
4. 조건

본 협약에 의거한 특정 프로그램의 약관은 양측의 논의와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각 활동의 세부사항은 본 협약서에 첨부되는 부록에서 다룬다.
5. 협약 기한
 - 5.1 본 협약은 양측 대리인이 서명하는 즉시 발효하여 3년간의 효력을 갖는다. 단, 당사자 일방이 재협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당사자는 3개월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 5.2 본 협약의 수정은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김 병 우
 충청북도교육감
 2015. 1.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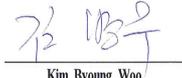

 Martin McQuillan
 킹스톤대학교 학장
 2015. 1. 15.

COLLABORATION AGREEMENT
BETWEEN
CHUNGCHONGBUK-DO OFFICE OF EDUCATION
AND
KINGSTON UNIVERSITY

1. PARTIES TO THE AGREEMENT
 - 1.1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1929 Cheongnam-ro, Seowon-gu, Cheongju, Chungcheongbuk-do 361-703, the education authority of Chungcheongbuk-do Province,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E."
 - 1.2 Kingston University, Higher Education Corporation of River House, 53-57 High Street, Kingston Upon Thames, Surrey KT1 1LQ, Engl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KU."
2. PRINCIPLES OF AGREEMENT
 - 2.1 COE and KU agree that they share common interests and there will be mutual benefit from close collaboration and cooperative ventures in training, research, consultancy, program development, study abroad opportunities for teachers, and annual program evaluation.
 - 2.2 All clauses of this agreement will have respect for the character, organisation, available resources and the corporate planning processes of each of the two organisations.
 - 2.3 Both parties agree that a commitment will only be made for cooperative activities that will have measurable outcomes.
3. GENERAL AREAS OF COOPERATION
 - 3.1 Study opportunities for teachers
 - 3.2 Collaborative research
 - 3.3 Collaborative staff development programs
 - 3.4 Shared consultancies
4. CONDITIONS

The terms of and conditions of any specific program that is agreed to under this Collaboration Agreement will be discussed by both parties and agreed to in writing. The details of each activity will be set out in a schedule that will be appended to this Collaboration Agreement.
5. DURATION OF THE AGREEMENT
 - 5.1 This agreement will become effective upon the signature by representatives of the two institutions and shall be in effect for three (3) years, unless either party wishes to terminate the Collaboration Agreement, in which case the terminating party shall give three (3) months advance notice in writing.
 - 5.2 Amendments to this agreement will only be made by the agreement of both parties.


 Professor Martin McQuillan
 Dean, Faculty of Arts & Social
 Sciences of Kingston University
 January 15, 2015


 Kim Byoung Woo
 Chungcheongbuk-do Governor of
 Education
 January 15, 2015

[사진13] 충청북도교육청-킹스톤대학교 업무협약서

※붙임 9. 애슐리 초등학교(Ashley C of E Primary School) 대화록

○ 일시 : 2015. 1. 15.(목) 13:00~14:30

○ 장소 : 애슐리 초등학교 교장실

○ 주요 대화

- 교육감 : 교육과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부와 학교의 관계는 어떠한가?
- 교장 : 정부는 최소의 간섭을 하고 깊이 들어가게 하면서 과정에서 일어나는 세부적인 것은 학교가 결정한다. 뭘 가르칠 것이냐는 정부가 주지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선 학교가 결정한다.
- 교육감 : 애슐리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교육철학은 무엇인가?
- 교장 :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책으로만 배우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 실용학습, 이게 중요하다 생각한다. 우리 학교에선 학생들이 자신이 배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항상 배우고 쓰고 배우고 나서는 이것을 몸소 실행한다.
- 장학관 : 한국에선 교과서를 국가에서 만들어주고 교사들은 교과서의 지식을 달달 외우게 해서 시험에 통과하게 하는 시스템이라 성적 위주로 흘러가게 된다. 그러나 충북에도 교육감님이 당선되시면서 창조적이고 성취적인 교육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한다. 당신의 얘기를 들으니 우리 교육감님 철학과 맞는 게 많아 기쁘다. 당신이 우리의 미래다.
- 교장 : 영국도 가르치고 시험보고 경쟁시키는 흐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담아야 한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배움이 아이들의 생활과 맞아 떨어지면 아이들의 배움은 더 즐겁다. 또한 아이들이 조직 안에서 자신의 기능이나 역할이 있다고 느껴질 때 더욱 즐거울 것이다.

----- 학생들 수업 참관 -----

- 교육감 : 교장선생님이 이 학교의 마에스트로처럼 지휘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인상 깊다.
- 교장 : 매우 고맙다. (일동 박수)
- 장학관 : 교장선생님께서 아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계시는 게 놀랍다.
- 교장 : 그건 매우 중요하다. 아이들은 자신의 이름이 불렸을 때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420명 정도 되는데 아이들 이름 외우긴 사실 힘들어서 핑크머리는 해리, 토마스는 이티 이런 식으로 연관 지어서 재밋게 외운다. (일동 웃음)
- 김OO : 교장선생님께서 오늘 교실의 모든 수업을 꺾고 계시는 게 놀라웠다. 평상시에 교육과정의 흐름을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 아니면 오늘 손님들이 와서 미리 복습을 하신건가?
- 교장 : 옆방에 교감선생님이 계시는데 교장과 교감은 학생들이 1주에서 6주까지 배워야 할 커리큘럼을 파악하고 있다. 시작할 때와 끝날 때에 대한 프로그램 또한 같이 의논한다.
- 김OO : 교사들의 자율성에 대해 관리자들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교장 : 정부와 학교의 관계와 같다. 정부에선 배워야 할 것을 정하고 학교에선 그 내용을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들은 교사들에게 "이런 거 생각해봤느냐? 이런 건 해봤느냐?"하는 질문을 던지고 교사들은 생각을 해보고 감동을 받고 하는 식의 흐름이다.
- 여행사 사장 : 담임은 해마다 바뀌나, 아니면 계속 똑같은 학년을 가르치나?
- 교장 : 해마다 바뀐다.
- 여행사 사장 :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나?
- 교장 :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험을 통해 평가하는 것은 우리도 있다. 하지만 시험 결과에 대한 관심보다는 과정에 대한 평가를 중시하고 있다.